금정구 중기 문화발전계획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

금정문화플랜

2019~2022

금정구 GEUMJEONGGU

금정문화재단 Geumjeo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

금정문화플랜

2019~2022

금정구 GEUMJEONGGU
금정문화재단 Geumjeo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CONTENTS

제1장
금정문화플랜 수립 개요

08 1. 금정문화플랜 수립 배경
09 2. 플랜 수립을 위한 문화 환경 분석
16 3. 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제2장
금정문화플랜 비전 및 추진방향

20 1. 비전
20 2. 핵심 추진방향
21 3. 핵심가치 및 목표
22 4. 핵심가치별 실행과제

제3장
금정문화플랜 실행전략 및 연차별 추진

30 1. 어디서 실행할 것인가? – 권역별 실행 전략
31 2. 누구와 실행할 것인가? – 주체별 수행 역할
33 3.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사업 주요범주
34 4. 주체, 사업범주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

부록

36 1. 금정문화플랜 수립 세부 과정
42 2. 금정문화플랜 수립 참여 구민의견

“문화가 함께 하는 하루”

문화를 통해

삶의 쉼표와 나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힘들고 외로운 일상을 위로받으며,

금정에서 살아가는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플랜이 꿈꾸는 금정의 하루

아침 : 문화적 디자인이 함께 하는 활기찬 아침

- 지역의 예술가가 지역기여활동으로 참여한 공공디자인이 있는 거리에서 즐겁게 출근을 한다.
- 아침 등굣길, 아이들은 금정구 상징인 금어가 그려진 교통지도 깃발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등교한다.
- 마을 쌈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은 건강을 챙긴다.

낮 : 문화교육,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한 한낮

- 아이들은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으며, 나와 이웃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인다.
- 청년예술가들은 부산 대학로의 청년창조발전소, 콘텐츠코리아랩,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개설한 문화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금정구에서의 자신의 전망을 그려본다.
- 마을의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니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러, 마을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 바쁜 출근 준비 후 주부들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가서, 이웃들과 수다도 떨고, 독서모임에도 참여하면서 힘들었던 아침의 스트레스를 푼다.
- 예술가, 문화기획자들은 공연예술연습장 및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작업, 연습, 파트너 미팅 등을 자유롭게 하면서 예술작업의 꿈을 키운다.

저녁 :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저녁

- 퇴근 후 마을문화사랑방에서 생활문화동아리 모임에 참여해서 책도 읽고 문화예술도 배우는 '문화에 흠뻑 빠진 시간'을 가진다.
- 하루 종일 떨어져있던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학로의 버스킹 공연을 보러 산책을 나온다.
-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각 세대가 만나서 문화활동가의 지원을 받으며 문화탐구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디자인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 예술가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이자 예술가로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기쁨을 느낀다.

휴일 : 우리 마을의 문화적 발견

- 금요일마다 배달되는 우리 지역 문화소식을 보고, 주말의 문화활동계획을 세워본다.
- 걸어서 갈 수 있는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푼다.
- 금정산과 오륜대에서 한달에 한번 열리는 달빛 콘서트에 참가한다.
- 지역의 축제 기획단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문화로 만들어본다.
- 금요일 저녁 함께 온천천을 걷는 나이트 워크에 참가하거나 아파트로 배달된 문화활동에 참여한다.

제1장

금정문화플랜 수립 개요

01

금정문화플랜 수립 배경

1) 배경 및 목적

▶ **삶의 양식으로서 구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넓은 의미의 문화 역할 강조**

2014년 문화기본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천명하면서, 문화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삶의 양식'으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문화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금정구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실시 이후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장기적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지역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 수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문화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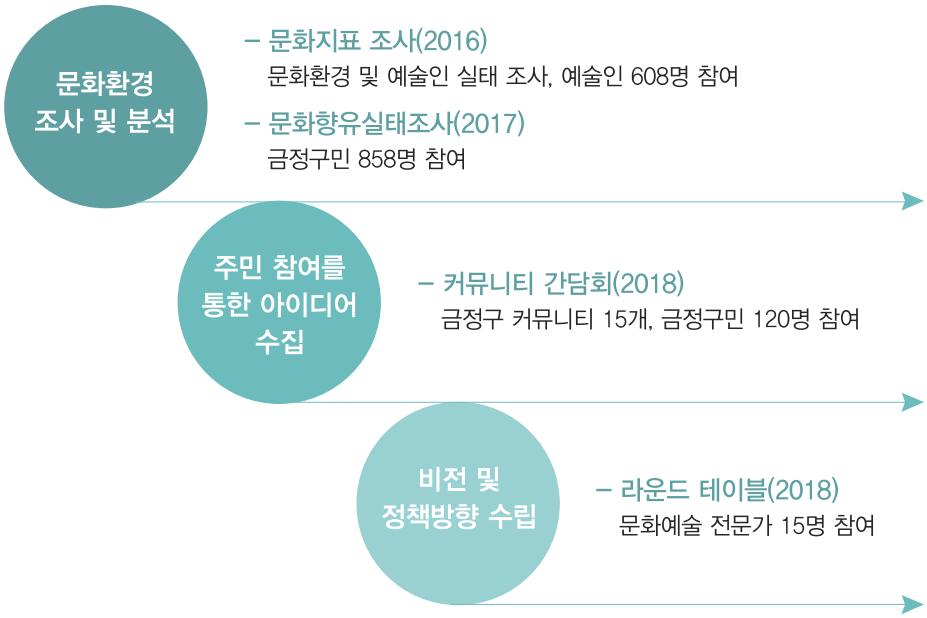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금정구를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관련 주체들이 함께 만드는 문화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2) 플랜의 범위

▶ **계획 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계획 범위 : 금정구의 문화예술, 생활문화 등 구민의 삶을 둘러싼 문화적 인프라 조성**

3) 플랜 수립 과정 체계



02

플랜 수립을 위한 문화환경 분석

1) 중앙정부 문화계획 및 금정구 문화환경 검토

(1) 새 문화정책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2018)

문화정책의 수립 원칙의 전환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로 /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로 /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창의성〉 사회의 창의성 확산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권 확산 – 문화권 실현을 위한 여가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고양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4.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 전통문화의 보호 및 현대화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관광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추진체계 정비	**7.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문화자원과 신기술 융합 촉진 –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 문화자원 융합 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2. 문화예술인 ·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 – 문화 분야 공공기관 및 지원체계 혁신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지원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 · 콘텐츠시장 공정 환경 조성 – 공정한 스포츠 문화 형성 –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체육·관광분야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획기적 전환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 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 성우호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6. 지역문화분권 실현** –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 공공 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 문화공유지 활성화에 의한 지역·공간 재생 –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2) 금정구 문화환경 분석

(1) 금정구 문화환경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다양한 자연 · 역사 · 관광 · 문화자산 보유 • 4개 대학교가 위치하여 청년문화, 지식자원 풍부 • 문화예술교육특구 등 문화예술관련 특성화 사업 추진 • 다수의 예술가 거주 및 왕성한 활동 중	• 내륙문화, 고도심 등 부산의 주요정체성으로 부각되지 못한 지역환경 •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도시 인프라 연계성 미흡 • 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세대별 공감 기회 저하 • 청년문화, 예술가 등 지역 문화자원 조명 기회 미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대 • 문화예술교육특구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 자원 중요성 증대 • 문화예술 관련 커뮤니티 및 예술가 집단 활동 활성화	•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 존재 •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문화소비 축소 • 청년 및 문화예술인의 자립기반 약화

S–O 전략	W–O 전략
▷ **문화다양성 확산** ▷ **세대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 **청년 예술가 활동 제고** ▷ **문화예술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	▷ **금정구 문화정체성 도출** ▷ **지역 예술가 활동 지원** ▷ **문화자원 이용 활성화**
S–T 전략	**W–T 전략**
▷ **금정구 기반 문화인력 양성** ▷ **문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 **생활권 기반 문화 활성화**	▷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 **지역 예술가 자생기반 확보** ▷ **문화적 사회공헌 활동 장려**

(2) 금정구의 문화자원 분석(2016 금정구 문화지표조사 발췌)

조사 개요

• 조사 문항 : 금정구 문화자원 조사 / 예술인 설문 및 심층면담조사

• 문화지표조사

대분류	중분류	목적	문항 수
인문사회 환경	생활환경	인구비율 및 주거상태 파악	7
	행정환경	금정구 재정상태 및 행정서비스 규모 파악	6
	경제환경	금정구 내 경제활동 규모 파악	4
	교육환경	교육환경 파악	3
문화기반	문화시설	공연, 전시 및 복합문화관련 시설 규모 파악	10
	문화자원	전통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자원 파악	6
	문화산업	문화산업 종류 및 규모 파악	3
문화활동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규모 파악	3
	문화교육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규모 파악	2
	문화활동인구	금정구 예술인 인구 파악	2
문화 행정	문화행정	문화관련 행정 규모 및 실태 파악	2
특화지표	글로벌문화	글로벌 환경 구축 및 문화다양성 실현 여건 확인	8
	생활문화	생활문화제공 실태 및 향유가능요건 파악	5
	청년문화	청년문화관련 인력 파악 및 시설과 예산 파악	5

• 예술인 설문조사 (금정구 예술인 608명 대상)

범주	목적	문항
문화예술 직업군 분류	설문조사 대상의 정확성 제고	문화예술계 직업군 파악
기본 생활정보	응답자 생활정보 및 활동 정보 파악	성별/연령/활동예술분야/예술활동 경력
예술관련 활동 형태	활동 관련 경제기반 파악	고용형태/근로계약여부
	문화사업 참여 및 인식 여부 파악	문화사업 참여 여부/지원사업정보 인식 여부
	예술인 창작기반 파악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예술활동지역으로서의 금정구에 대한 인식	예술활동지역으로서 금정구의 강점과 약점 파악	예술활동시 금정구의 장점/단점
예술가로서의 창작활동과 생활만족도	금정구 예술가 지원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예술가로서 현재 만족도/미래 활동 전망 사회와 예술 관계에 대한 주관적 판단

• 예술인 심층면담조사

조사대상 : 장르 및 세대 고려 지역 예술인 30인 선정 후 심층면담 진행

면담질문 : 활동과정의 어려움(공간/인력/창작비용) / 홍보과정에서의 어려움
예술인을 위한 교육 및 /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 금정문화재단에 대한 조언
특화지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요약

인문사회환경

– 다른 구에 비해 주거지로서의 특성이 강했으며 녹지 비율이 높음
– 전통적 주거형태인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
– 세대별 인구는 50대와 20대가 가장 많으며, 대학 4개소 보유한 우수한 교육도시

문화기반

–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부산시에서 6번째로 3.25개라는 낮은 시설 수
– 공공도서관의 수는 부산시 평균과 비슷하였으나 작은 도서관의 경우 장서량은 상위 기록.
–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범어사가 보유한 문화재 수가 다수.
– 문화산업에서는 예술학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

문화활동

– 공연의 경우 공공 공연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음악장르 공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축제의 경우 금정구청 주관 축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온천천 및 부산대 지하철역 근처 등 특정 장소 중심으로 축제 집중 개최
– 생활문화교육에 있어서는 참여,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 관련 프로그램 부재.

문화행정

– 문화행정의 문화재정(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지표에서는 3.7%로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 절대 예산액에 있어서도 두 번째로 많음.

글로벌문화

– 금정구 거주 외국인은 유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국적은 중국이 가장 다수.
– 금정구의 외국인 지원 시설은 한국어 교육이나 유학생 지원관련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다수.
–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이 실행되는 기관은 금정구청과 금정도서관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생활문화

– 생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금정구 생활문화연합회 등록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가 약 470명이고,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강사인력의 경우 약 230여명이 활동.

청년문화

– 온천천 어울마당, 부산대역 문화나눔터 등 특정 장소 중심으로 청년문화 활동 집중 전개
–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설은 공공과 민간에서 각 3개소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년문화 예산의 경우 구비보다는 시비에 의존하여 운영.

예술인 설문 조사

– 문화예술지원 및 사업 정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처 및 사업 세부 정보 미숙지
– 공모 및 지원사업의 정보획득 경로에서는 지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예술활동지역으로서 금정구의 장점은 예술인 다수 거주, 단점은 작품활동 공간과 기회 양적 부족
– 전문예술인의 경우 예술가의 직업 및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사회와 예술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긍정적

예술인 심층면담 조사

– 공통적으로 예술작품 및 작가에 대한 홍보활동,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문화기획에 어려움 토로
–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문화기획 작업에 어려움을 느낀 예술인 다수 존재
– 지역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수립 및 서로의 활동장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개발 제안
– 예술적 역량강화를 위한 동향 세미나 및 교육이나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3) 금정구민 문화향유 여건 및 실태 (2017 금정구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발췌)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만 18세 이상 금정구민 858명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 동별 파견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7년 8월 22일 ~ 9월 25일
• 조사문항 : 총 41문항

범주	목적	질문
Ⅰ. 문화향유 및 여가인식	문화예술의 전반적 인지도	문화예술 관심도 / 만족도 문화활동 향유 시간대 / 결정요인 문화활동 정보취득 / 주 동반자 / 전망 여가활동 조사 / 문화예술 차지 비중
Ⅱ. 문화향유 참여활동	문화예술 장르별 참여활동	문화예술분야별 참여도, 형태 주 활동 동호회 분야, 만족도 등 예술분야 선호도 및 참여형태
	생활문화활동	생활문화 분야별 참여도, 형태 참여 희망 생활문화 분야, 형태 생활문화 활동 목적
Ⅲ. 금정구 문화분야 인식	금정구 지역의 문화인식도 조사	금정구 문화브랜드 / 인프라 / 재단 인식도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평가
Ⅳ. 응답자 기본현황	응답자 특성 분석	교육 정도 / 세대 구성 / 가계소득 등

주요 조사 결과 요약

문1.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관심없음 51.3% > 관심있음 48.7%)
☞ 여성,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자녀가 어릴수록 문화예술 관심도가 높음

문2. 자신의 문화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58.3% > 만족 41.7%)
☞ 저학력, 저소득, 독거에서 문화생활 불만족도가 높음

문3.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주말주간 44.9% > 평일주간 21.8%)
☞ 대체로 '주말주간' 선호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평일주간' 선호

문4. 문화활동을 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1,2순위 종합)
(적절한 비용 27.8% > 행사의 내용 및 수준 26.6%)

문5.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 취득 경로 (주변사람 41.8% > 인터넷 등 온라인광고 24.4%)
☞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층 → '주변사람'으로 응답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층 →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로 응답

문6. 문화활동 주 동반자 (가족 39.4% > 친구/연인과 함께 33.2%)
☞ '미성년' 자녀 가정 문화 활동의 주동반자가 '가족'

문7. 지난 1년 대비 향후 1년간 문화활동 증감 예상 (비슷하게 유지 74.5% > 늘릴 것 19.6%)

문8. 지난 1년간 여가시간에 주된 활동 (TV시청 41.7% > 인터넷검색 및 게임 18.3%)
☞ 고연령, 저학력, 독거, 저소득층→ 'TV시청' /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층→ '인터넷검색 및 게임'

문9. 여가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 (낮음 83% > 높음 17%)

문10–1. 지난 1년 간 부산지역 문화예술 관람 경험 (영화 73.3% > 거리예술 28.3% > 대중음악 19.8%)
☞ 고학력, 저연령, 고소득층 미취학자녀 가정이 영화, 거리예술, 대중음악 관람 경험

문10–7. 앞으로 참여해보고 싶은 문화예술분야(1,2순위종합)
(대중음악 25.6% > 영화 21.3% > 전통예술 10.7%)
☞ 고연령, 저학력, 독거, 저소득층에서 '대중음악' 분야 선호

문10–8. 참여희망 문화예술분야의 선호 참여 형태(다중응답)
- 관 람 : 영화 98.9% > 거리예술 98.7% > 뮤지컬 98.3%
- 교 육 : 문학 37% > 무용 32.8% > 인문학 23.1%
- 동호회 : 인문학 18.5% > 무용 12.5% > 서양음악 11.4%

문11-1. 지난 1년 간 부산지역에서 생활문화활동 교육 경험
(건강 14.5% > 자연체험 5.1% > 봉사활동 3.6%)

문11-2. 지난 1년 간 부산지역에서 생활문화활동 동호회 경험
(건강 7.3% > 봉사활동 1.2% > 자연체험 1%)

문11-3. 앞으로 참여해보고 싶은 생활문화 분야(1,2순위 종합)
(건강 24.5% > 자연체험 15.5% > 요리 9.9%)

문11-4. 참여희망 생활문화분야 선호 참여형태(다중응답 종합)
- 교　육 : 생활공예 93.8% >요리 93.3% >기술 92.3%
- 동호회 : 자연체험 60.7% >봉사활동 54.3% >건강 53.2%

☞ 전반적으로 교육 욕구는 매우 높게 나타남. 건강, 자연체험, 봉사활동에서 동호회 활동 선호가 높아 적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문11-5. (생활문화활동 참여자만) 활동의 목적(택1)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44.1% > 여가시간 활용 41.9%)
☞ 저연령, 고학력, 유자녀, 고소득 →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고연령, 저학력, 독거, 저소득 → '여가시간 활용'

문12. 금정구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1,2순위 종합) (범어사 33.7% > 금정산, 금정산성 29.3%)
☞ 문화브랜드를 체험보다 관광분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

문13. 금정구 문화예술분야 인프라 평가
(금정구에는 문화시설이 많다고 생각한다. 58.7% > 다른 구에 비해 금정구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 56.7%)

문14-1. 금정구 문화시설 인지 여부
(동주민센터 97.3% > 스포원파크 95.7%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79.8% >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77.9%)

문14-2. 금정구 문화시설 이용 여부
(동주민센터 66.2% > 스포원파크 59.2%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4.6% > 금정도서관 21.7% > 금정문화회관 16.6%)

문21. 일상생활 행복도(100점 만점/전체 평균 75.7점) (80점대 34.3% > 70점대 34% > 60점대 15.3%)
☞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가족이 있는 경우 행복도가 높음

03

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1) 문화플랜 자문단 회의 운영

▶ **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6월 (4회 개최)**

▶ **자문단 구성**

	이름	소속	분야	비고
1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대표	문화예술교육	
2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3	최시내	예술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커뮤니티아트, 문화예술교육	

2) 금정구민 커뮤니티 간담회

▶ **기간 : 2018년 2월 ~ 5월 (15회 개최)**

▶ **추진 특징**

– 지역, 연령을 안배하여 예술인, 생활문화동아리, 지역민, 대학생, 청소년, 공무원 등 다양한 영역의 커뮤니티 간담회 시행

▶ **질문 문항**

– 금정구에서의 문화생활 진단 및 문화에 대한 기초 정의

– 금정구만의 특별한 문화 (경험에 기반한 의견)

– 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한 제안

▶ **참여 커뮤니티 명단(15개 커뮤니티, 120명 참여)**

	일자	대상	참석	성격		
1	2.7.	청년예술인	12명	청년	예술	장전동
2	2.12.	밥모임도시락	5명	청년	소모임	장전동
3	2.13.	장성시장 청년사업자	6명	청년	문화경제	장전동
4	3.6.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8명	노년	생활문화	전체
5	3.8.	금샘마을도서관 책마실	6명	중년	동아리	구서,남산동
6	3.8.	생활문화동아리 다하미	6명	중년	동아리	부곡동
7	3.28.	부산대 예술대 학생회	7명	청년	예술	장전동
8	4.3	회동동 도래마을 시니어	10명	노년	생활문화	회동동
9	4.4.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6명	중년	행정	전체
10	4.5.	금샘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명	청소년	생활문화	남산동
11	4.24.	창작촌과 사랑방손님 참가자	8명	중년	예술	서동
12	4.26.	서동 마마유 참가자	7명	중년	생활문화	서동
13	5.4.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7명	중년	생활문화	금성동
14	5.12.	금정청소년수련관	16명	청소년	동아리	전체
15	5.17.	현곡초등학교	6명	중년	교육	전체
합계			120명			

▶ **주요 의견(세부내용 부록 참조)**

금정구민에게 문화란?	금정구의 특별한 문화	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한 제안
– 삶의 활력을 주는 것 – 삶에 필수적인 것 – 나를 성장시키는 것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 사람과의 연결고리 – 쉽게 즐기지 못하는 것	– 대학 관련(4개 대학, 부산대학로) – 관내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 온천천, 금정산 등 자연환경 – 범어사, 금샘설화 등 역사자원 – 인적 인프라, 자생적 문화활동 문화단체 등	– 네트워크 거버넌스체계 구축 –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 – 일상적인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 민간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 문화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3)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개최

▶ **기간 : 2018년 6월 ~ 7월 (3회 개최)**

▶ **추진 특징**

– 부산시 문화비전 수립 참가 경험이 있거나 지역기반 활동을 수행 중인 전문가들로 구성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추진 내역 및 주요의견**

1차	참가자	황정미(산복도로커뮤니티문화센터장) / 한승욱(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 황해순(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김강임(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주요의견	– 기초단위 문화계획은 관광, 예술진흥 등의 주제에 앞서 지역민을 위한 밀착형 문화 기획이 필요. – 문화공간 운영의 시간적 확장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는 꼭 실천해보면 좋겠음. – 앞으로 문화공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지역 건축가 등의 민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함. – 금정구 전체의 문화계획으로서 구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2차	참가자	김효정(부산일보 기자) / 정희준(부산관광공사 사장) 구모룡(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 김원명(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류지석(부경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주요의견	– 금정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음. – 큰 비전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변화가능한 계획이었으면 좋겠음. – 재단이 계획을 만들기 전에 재단의 현황을 분석해보는 작업도 필요. – 교육청과의 협업도 꼭 추진하였으면 좋겠음.
3차	참가자	이수진(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 주유신(영산대 게임영상컨텐츠학부 교수) 이영준(김해문화의전당 문화정책팀장) / 하성아(금정도서관 열람팀장) 김승남(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요의견	– 금정구 문화의 전체적인 판을 다시 짠다는 느낌으로 금정구가 가장 잘하면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방향성을 찾는 고민이 들어가야 함. – 금정구를 둘러싼 외부지역과의 연계를 함께 고민해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문화발전계획의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포함된 계획을 만들어야 함.

제2장

금정문화플랜
비전 및 추진방향

01 비전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

문화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로서, 문화에 있어 사람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간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 집중한 나머지, 문화를 만드는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사람을 중심에 둔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이라는 금정문화플랜의 비전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문화가 존중받으며 삶이 빛나고, 개개인의 다채로운 문화들이 모여 도시 전체가 문화적으로 빛날 순간이 금정문화플랜이 상상하는 금정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02 핵심 추진방향

▶ **문화민주주의적 원칙, 지속적이고 과정적 계획**

– 향수자와 창작자,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이분법적인 정의를 없애고, 누구나 감상, 참여, 창작의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민주주의적 원칙을 반영하겠습니다.

–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적 중요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개인 차원 : 문화향유기회 보장 및 생활문화 활동 확산**

– 구민이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기회 확대, 생활문화활동 진흥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예술가의 생활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구민 문화활동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동체 차원 : 지역 내 문화주체 및 자원과 관계맺기**

– 구민, 예술가, 단체, 문화공간, 생활문화동호회, 문화관련 기관 등 지역의 주체와 자원들의 유기적 연결망을 만들어 문화가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구민 간 이해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및 상호학습 문화활동을 보급하겠습니다.

▶ **지역 차원 : 구민 주도 도시 문화 발전 및 문화의 사회적 역할 확산**

– 구민이 도시문화 발전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축제 참여 등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기회를 만들어,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발전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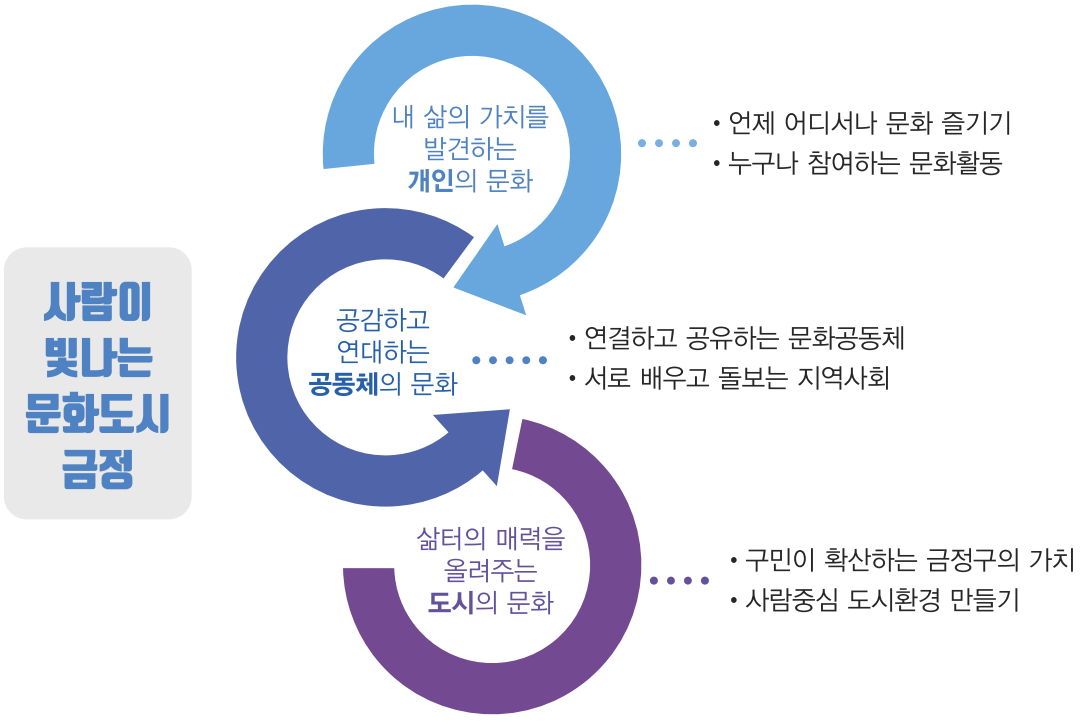
핵심가치 및 목표

금정문화플랜의 비전인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창의성을 통한 도시 발전이 필수적 과제라 여기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개인의 문화',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문화', '삶터의 매력을 올려주는 도시의 문화'**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1)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개인의 문화'**는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성 및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공평한 기회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문화'**는 사람을 이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공유하는 문화공동체와 서로 배우고 돌보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 **'삶터의 매력을 올려주는 도시의 문화'**는 문화를 통해 삶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정주가치를 찾기 위해, 구민이 확산하는 금정구의 가치와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04

핵심가치별 실행과제

비전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		
핵심가치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개인의 문화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문화	삶터의 매력을 올려주는 도시의 문화
목표	– 언제 어디서나 문화 즐기기 –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활동	– 연결하고 공유하는 문화공동체 – 서로 배우고 돌보는 지역사회	– 구민이 확산하는 금정구의 가치 – 사람중심 도시환경 만들기
실행과제	**문화정보 쉽게 만나기** **지역문화 참여포털 조성** – 금정구 문화정보 및 활동 참여 포털 운영 **지역대학 협력 문화활동가 양성** – 지역대학 협력 문화활동가 교육 및 양성	**문화로 연결되는 공동체** **지역문화 관련 연결망 구축** – 예술인, 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 민간 주도 지역기여활동 추진 **커뮤니티 기반 문화활동 활성화** –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조성 – 문화활동 커뮤니티 발굴 및 멘토링 지원	**우리동네 문화자원 가치 확산** **구민주도 지역특화문화기획** – 축제 내 구민 참여 활성화 – 구민참여 도시문화 브랜드 구축 **자연환경 활용 문화활동 개발** – 금정구 자연환경 활용 문화활동 개발 및 운영
	가까이 만나는 문화공간 **생활권 내 복합문화공간 운영** – 권역별 문화사랑방 운영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화환경** **문화공유 및 협업기반 조성** – 문화 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및 운영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지역예술가 활동 지원** – 예술가 홍보 마케팅 및 역량강화 –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공평한 문화활동기회 **문화활동기회 확장 및 다양화** – 생활거점 기반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 – 생애주기별 문화활동 개발	**지역을 돌보는 문화활동** **지역사회 연계 문화활동 확산**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문화적인 사회환경 만들기** **문화환경 담론 조성 및 조사시행** – 문화적 도시환경 담론 조성 – 문화관련 사회기반 조사 시행

1)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개인의 문화

"문화는 '나랑 친해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해야 하는 정해진 것'이지만, 문화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이니까 '나만의 것'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대학생 김찬우)

"문화 행사들이 많은데,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소통과 홍보가 잘 되어서 금정구민들의 머릿속에 대충의 문화 지도가 그려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 자갈치 전성호)

"일상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거쳐서 이어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 자원봉사자 김재석)

(1) 목표

언제 어디서나 문화 즐기기 /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활동

(2)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문화정보 쉽게 만나기

지역문화 참여포털 조성

▶ 구민들이 쉽게 우리지역의 행사, 교육, 생활문화동아리 등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정보를 망라하는 지역문화 참여포털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금정구 문화정보 및 활동 참여 포털 운영

지역대학 협력 문화활동가 양성

▶ 지역민 및 청년들이 문화활동가로 성장하여,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문화촉매자로서의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 주민센터, 복지관 등 문화촉매활동이 필요한 기관을 발굴, 문화활동가를 파견,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지역대학 협력 문화활동가 교육 및 양성과정 개발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컬쳐디자이너

가까이 만나는 문화공간

생활권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 도보가능한 거리에 문화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해서 문화활동의 공간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학교 도서관, 민간 작은 도서관 등을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시간적 이유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녁, 주말 등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금정구 권역별 문화사랑방 운영

– 구서, 남산 / 장전,부곡 / 서,금사 권역별 문화사랑방 조성 및 민간 공간 문화사랑방 역할 수행 지원
– 사랑방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민간 주도 운영 유도

공평한 문화활동기회

문화활동기회 확장 및 다양화

▶ 아파트, 쌈지공원 등 주거지역 가까이의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소외됨 없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문화활동을 발굴,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참여하는 예술가와 참여자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이라는 이름의 수평적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 생활거점 기반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

– 아파트, 쌈지공원 등 주거지역 공용공간 활용 찾아가는 문화활동 시행
–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있는날 사업 시행

• 생애주기별 문화활동 발굴 및 개발, 정보 제공

– 시니어, 청소년, 중년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 발굴, 개발 및 민간 활동 정보 제공

서동예술창작공간

찾아가는 문화활동 – 구서2동 빛축제

2)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문화

"문화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나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것이 문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 자원봉사자 손안섭)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문화도 다양해서 하나로 통일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생 강성택)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고 집안 일도 하다가 한번씩 동아리에서 문화생활을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나에게 휴식인 것 같아요."
(금정구 생활문화동아리 다하미 박성언)

(1) 목표

연결하고 공유하는 문화공동체 / 서로 배우고 돌보는 지역사회

(2)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문화로 연결되는 공동체

지역문화 관련 연결망 구축

▶ 예술인, 문화 활동가, 공간 운영자 등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관련 연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민간이 주도하여 도시재생, 문화복지, 유휴공간 활용 등 지역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기여활동을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 지역 문화 기획자, 예술인, 공간 운영자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기여활동에 관심있는 예술인, 기획자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발전 아이디어 논의
– 관내 문화공간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구민 대상 연합 홍보 캠페인 전개

• 민간 주도 지역기여 활동 추진

– 네트워크 주도 지역기여활동 전개 여건 마련 및 사업 수행 지원

커뮤니티 기반 문화활동 활성화

▶ 금정구 활동 생활문화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참여 가능한 생활문화활동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지역 예술가 멘토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와 주민 커뮤니티 간 연결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 예시사업)

• 금정구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조성

– 금정구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확장 및 생활문화마켓 등 진행

• 문화활동 커뮤니티 발굴 및 예술가 멘토링 지원

– 심화된 문화활동을 희망하는 커뮤니티와 예술가 멘토링 연결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화환경

문화공유 및 협업 기반 조성

▶ 금정문화회관 1층 연회장 일부를 예술인 및 기획자들을 위한 문화협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예술인 및 기획자 간 다양한 활동의 장과 협업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연예술연습장을 조성, 운영하여 지역예술인 및 주민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 문화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 공간 이용 멤버십 운영 /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문화활동 지원 홍보, 마케팅 특강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야간 21시까지 운영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및 운영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및 운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비 지원)

지역을 돌보는 문화활동

지역사회 연계 문화활동 확산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공감을 높이기 위해 문화다양성 사업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세대 간 협력 사업과 캠페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특구인 금정구의 장점을 살려 서로배움에 기반한 문화활동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학습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예시사업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인생기록단, 세대교류 프로젝트 등) 개발 및 실행

생활문화마켓 오이소잼잼공장

문화다양성 사업 〈인생기록단〉

3) 삶터의 매력을 올려주는 도시의 문화

"금정구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을 문화행사에 중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에 능동적으로 협업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금정구 예술단체 M.A.P 전건오)

"금정구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금정구에 살고 있는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금정구만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강성택)

"온천천에 벽이 많아서 여름밤에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화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박한나)

(1) 목표

구민이 확산하는 금정구의 가치 / 사람 중심 도시환경 만들기

(2)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우리동네 문화자원 가치 확산

구민주도 지역특화문화 기획

▶ 지역축제 중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 개발하여 축제의 주인으로서 구민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구민의 기억에 기반한 지역사를 수집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발굴하고 컨텐츠화 하여, 우리 모두의 지역사를 만들어갑니다.

▶ 예시사업)

- 구민기획단 등 지역축제 내 구민 참여 활성화
  - 지역 축제 준비과정에 구민 참여 시스템 마련 및 운영
- 구민 참여 도시 문화 브랜드 구축
  - 금정구의 장소들이 문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구민참여 기억 수집, 의견 수렴 등 진행

자연환경 활용 문화활동 개발

▶ 전체 면적의 약 80%가 녹지환경으로 구성된 금정구의 자연환경은 매우 뛰어납니다.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생명환경의 도시로서의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 예시사업)

- 금정산 달빛콘서트, 온천천 나이트워크 등 지역 자연공간 활용 문화프로그램 운영
  - 금정산, 오륜대, 온천천을 활용한 구민 참여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자연환경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 생명환경의 도시 금정 이미지 부각
  - 지역 생태환경과 문화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지역예술가 활동 지원

▶ 지역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 및 작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창작역량을 강화,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문화공간들이 지역문화생태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 및 협업 구조를 개발하겠습니다.

▶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의 예술가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사업, 취창업 교육, 예술가 멘토링 등 다양한 참여 및 활동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예시사업)

• 지역예술가 및 단체 홍보 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영상제작, 홍보 마케팅 강의 제공 등 지역 예술가 및 단체의 자생적 역량강화 지원

•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활용 청년문화인 인큐베이팅 사업

–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서동예술창작공간 내 예술가 레지던스 등 청년문화인 인큐베이팅 추진

문화적인 사회환경 만들기

문화환경 담론 조성 및 조사 시행

▶ 도시환경을 문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적 도시환경에 대한 담론 조성 및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환경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문화지표조사 및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지속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금정구 문화환경의 변화 양상을 살피겠습니다.

▶ 예시사업)

• 도시환경의 문화적 조명을 위한 담론 형성 : 도모정담 활용 문화도시 관련 논의

– 정기적인 포럼 개최 및 지역문화 관련 정책의제 도출

• 문화지표조사, 문화향유실태조사 등 사회기반 조사 정기적 시행

– 2020년 문화지표조사, 2021년 문화향유실태조사 시행

금정구 문화공간 네트워크

2018 금정문화 도모정담

제3장

금정문화플랜 실행전략 및 연차별 추진

01

어디서 실행할 것인가? – 권역별 실행 전략

서, 금사동 (동부 생활권)		장전, 부곡, 구서, 남산동 (남부 생활권)	
주요공간	서동예술작공간, 섯골문화예술촌, 생활문화센터(2019년 하반기 개관예정), 서동도서관	주요공간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원, 금정문화재단, 금정공연예술지원센터, 예중, 예고, 대학
사람	거꾸로놀이터, 다행복학교(서명, 금사, 서동) 회동도래, 섯골마실 행복마을	사람	금샘마을공동체, 행복마을 공동체 미리내, 머드레, 희망숲속 행복마을
특징	공단, 정책이주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징	대학 밀집, 공동주택 밀집 금정구 전체 인구의 76% 거주(2018.9 기준)
금성동 (서부 생활권)		**청룡노포, 선두구동 (북부 생활권)**	
주요공간	금정산성, 금정산	주요공간	회동수원지, 금정체육공원, 범어사, 금정도서관
사람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다행복학교(금성) 금정산성 행복마을	사람	연꽃향기 행복마을
특징	자연생태 환경, 막걸리 등 지역특화자원 존재, 금정구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활성화 지역		

※ 생활권 구분 : 2030금정 Vision 중장기 발전계획 참고

동부 생활권 문화적 도시재생

▶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이 활발히 추진될 이 지역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핵심적으로 추진합니다.

▶ 공단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제공 및 셉티드(CPTED) 디자인 등 문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남부 생활권 주민 중심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대학 연계 문화환경 조성

▶ 공동주택 등 주민 밀집지역 내 작은도서관, 문화사랑방 등 생활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가톨릭대, 대동대와 연계하여 주민과 대학,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마을을 추진합니다.

서부, 북부 생활권 역사 등 지역특화자원 및 자연환경 활용 문화관광 활성화

▶ 금정산성, 범어사 등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합니다.

▶ 도시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녹지 및 자연환경을 부각하는 생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정구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 금정구민 및 부산시민이 즐기는 여가활동 지역으로서의 이미지에 문화예술을 더하여 문화적 치유장소의 기능을 부각합니다.

02

누구와 실행할 것인가? – 주체별 수행 역할

금정구 중기 문화발전계획인 금정문화플랜을 실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금정구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구민과 예술가들입니다. 구민과 예술가를 중심에 두고, 금정문화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금정문화플랜 관련 주체 간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습니다.

금정구민, 예술가 — 아이디어 제안 및 기획 · 실행 /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 금정구 문화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정구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에 기반한 문화활동에 참여합니다.

금정구청 — 문화분야 행정적 지원 / 복지, 교육 등 타 분야간 협력 모색

▶ 문화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금정 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지, 교육, 경제 등 구민을 둘러싼 행정영역과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면서 금정구의 다양한 문화주체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금정문화재단 — 문화 정책의제 도출 / 금정문화플랫폼 구축

▶ 금정구민과 예술가를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화플랫폼을 구성합니다. 지역의 문화 여건을 파악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 운영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를 도출하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전망을 모색합니다.

금정문화회관 — 다양한 공연, 전시 기회 등 제공 / 금정구 문화향유 거점 기능

▶ 특화된 클래식 장르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예고, 예술대학 등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데뷔 기회를 제공하면서, 금정구의 대표적 문화향유 거점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정문화원 — 향토문화 연구 / 지역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보급

▶ 향토사 및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및 보급 활동을 수행합니다. 구민들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 문화재들을 효과적으로 소개,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합니다.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랑방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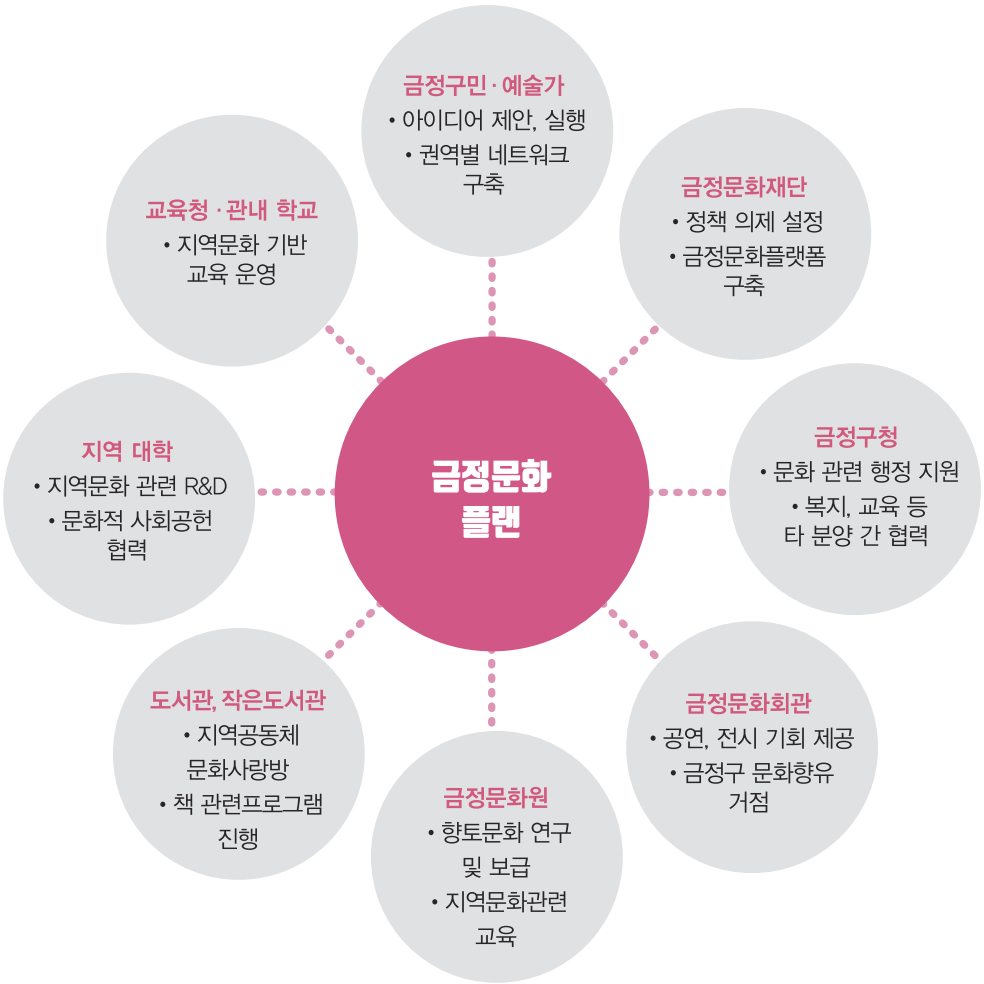
▶ 금정도서관, 서동도서관, 금샘도서관(가칭, 개관예정) 등 거점 도서관과 더불어 동네 곳곳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생활문화활동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도서 관련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마을 주민 간 소통과 관계맺음의 공간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 대학 **지역문화 관련 R&D / 문화적 사회공헌활동 협력**

▶ 지역문화의 질적 제고를 위한 문화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적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교육청, 관내 학교 **지역 문화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사 및 지역문화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하는 역할을 협력 수행합니다.



03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사업 주요범주

금정문화플랜의 실행을 위해 핵심가치에 따른 예시사업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 문화플랜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범주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거나, 공간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범주가 될 것입니다.

사람 / 활동

▶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범주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균형적이고 공평한 방향의 사업들을 개발하겠습니다.

정보 / 연구

▶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전략 및 정책적 전망을 도출하는 범주입니다. 지역문화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내 사업들에 대한 문화적 평가를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04 주체, 사업범주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

핵심가치	추진전략	실행과제	예시사업	주체	사업범주	2019	2020	2021	2022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개인의 문화	1. 문화정보 쉽게 만나기	1-1.지역문화 참여포털 조성	지역문화 참여포털 조성	구민/구청/재단	사람/정보				
		1-2.지역대학 협력 문화활동가 양성	문화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단/대학	사람				
	2. 가까이 만나는 문화공간	2-1.생활권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사랑방 운영	구민/구청/재단/도서관	공간/사람				
	3. 공평한 문화활동기회	3-1.문화활동기회 확장 및 다양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원/재단	사람				
			생애주기별 문화활동 개발	문화원/문화회관/재단	사람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문화	4. 문화로 연결되는 공동체	4-1.지역문화 관련 연결망 구축	예술인, 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구민/재단	사람				
			민간 주도 지역기여활동 추진	구민	사람/정보				
		4-2.커뮤니티 기반 문화활동 활성화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조성	구민/재단	사람				
			문화활동 커뮤니티 멘토링 지원	구민/재단	사람				
	5.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화환경	5-1.문화공유 및 협업 기반 조성	문화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구청/재단	공간/사람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및 운영	구청/재단	공간/사람				
	6. 지역을 돌보는 문화활동	6-1.지역사회 연계 문화활동 확산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구민/대학/복지관/학교	사람/정보				
삶터의 매력을 올려주는 도시의 문화	7. 우리동네 문화자원 가치 확산	7-1.구민 주도 지역특화문화 기획	축제 내 구민 참여 활성화	재단/문화원	사람/정보				
			구민 참여 도시문화 브랜드 구축	구청/대학/문화원/학교	사람/정보				
		7-2.자연환경 활용 문화활동 개발	자연환경 활용 문화활동 개발	구청/재단	사람/정보				
	8.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8-1.지역예술가 활동 지원	예술가 홍보 마케팅 등 역량강화	구민/재단	사람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재단/대학	사람				
	9. 문화적인 사회환경 만들기	9-1.문화환경 담론 조성 및 조사 시행	문화적 도시환경 담론 조성	재단/대학	사람/정보				
			문화관련 사회기반 조사 시행	재단/대학	정보				

※ 주체 : 구민-구민 및 지역예술인 / 재단-금정문화재단 / 구청-금정구청 / 도서관-금정, 서동도서관 / 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 / 문화원-금정문화원 / 대학-지역 대학

※ 시기별 중점 추진 단계 / 지속 추진 단계

부록

01

금정문화플랜 수립 세부 과정

1) 문화플랜 자문단 회의 운영

▶ 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6월 (4회 개최)

▶ 자문단 구성

	이름	소속	분야	비고
1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대표	문화예술교육	
2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3	최시내	예술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커뮤니티아트, 문화예술교육	

▶ 자문단 회의 추진 사항

	일자	주제	의견 사항
1	2017. 10.23.	문화플랜 수립계획 검토 및 자문	– 문화재단 운영 전반 조언 참고
2	2018. 1.22.	문화플랜 추진 절차 및 플랜 보고서 작성 관련 자문	– 문화플랜 분량 압축 조정 – 문화플랜 주체별 역할 명시 – 타운홀미팅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로 의견수렴 방식 변화
3	2018. 2.20.	커뮤니티 간담회 1차 추진결과 검토 및 추가 진행관련 자문	– 시니어, 청소년 커뮤니티 섭외 추진 – 문화기획 집적가능한 사업 추진 – 문화회관 공유공간 운영
4	2018. 6.21.	문화플랜 1차 가안 검토 및 자문	– 금정구 문화로 플랜 범위 확대 – 각 기관 별 문화사업추진시 가이드라인 작성 – 문화플랜 성과지표 작성

2)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개최

▶ 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7월 (3회 개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구성 목표

▶ 금정문화플랜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더불어 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과정 필요

▶ 〈커뮤니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었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정책화 과정

전문가 구성 기준 및 특징

▶ 부산지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정책 전문가 및 금정구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

▶ 과거 부산시 및 부산문화재단 비전 수립 작업 참여 전문가 포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명단 (총15명)

	분야	이름	소속	비고
1	생활문화	황정미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대표	산복도로커뮤니티센터장
2	도시재생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3	문화기획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부산문화재단 비전2020 참여
4	문화예술	황해순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진흥본부장	부산문화재단 비전2020 참여
5	지역특화	김강임	금정구 청소년수련관 관장	금정구 유관기관
6	언론	김효정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7	문화정책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부산시 인수위 시민정책단장
8	문화정책	구모룡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전 부산문화정책연구소 소장
9	예술경영	김원명	경성대 음악학과 교수	부산문화재단 비전2020 참여
10	문화일반	류지석	부경대 인문사회연구소	
11	문화기획	이수진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12	문화정책	주유신	영산대학교 게임영상콘텐츠학과 교수	
13	문화정책	이영준	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14	지역특화	하성아	금정도서관 열람팀장	
15	도시재생	김승남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 **1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일시 및 장소 : 2018. 6. 28. 금정문화재단 회의실

– 참가자 명단

황정미(산복도로커뮤니티문화센터장) / 한승욱(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 황해순(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진흥본부장) / 김강임(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 논의 결과

- 기초단위 문화계획은 관광, 예술진흥 등의 주제에 앞서 지역민을 위한 밀착형 문화기획이 필요.
- 문화공간의 시간적 확장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는 꼭 실천해보면 좋겠음.
- 앞으로 문화공간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지역 건축가 등의 민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쓸모가 많은 공간이 될 것.
- 금정문화플랜이 금정문화재단만이 아니라 금정구 전체의 문화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한 구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 **2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일시 및 장소 : 2018. 7. 16. 금정문화재단 회의실

– 참가자 명단

김효정(부산일보 기자) / 정희준(부산관광공사 사장) / 구모룡(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김원명(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 류지석(부경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논의 결과

- 금정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음.
- 다만, 그 고유한 특성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고유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추진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큰 비전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변화가능한 계획이었으면 좋겠음. 이는 추후 실행계획을 보완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재단이 계획을 만들기 전에 재단의 현황을 분석해보는 작업도 필요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할 때 교육청도 꼭 넣었으면 좋겠음.

▶ **3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일시 및 장소 : 2018. 7. 31. 금정문화재단 회의실

– 참가자 명단

이수진(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 주유신(영산대 게임영상컨텐츠학부 교수)
하성아(금정도서관 열람팀장) / 이영준(김해문화의전당 문화정책팀장
김승남(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논의 결과

- 금정문화플랜의 위상이 정확하게 어떠한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것.
- 금정구 문화의 전체적인 판을 다시 짠다는 느낌으로 금정구가 가장 잘하는, 그리고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방향성을 찾는 고민이 들어가야 함.
- 금정구를 둘러싼 외부지역와의 연계를 함께 함으로써 재단의 입지를 넓혀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문화발전계획의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포함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음.

금정문화플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3) 금정구민 커뮤니티 간담회

커뮤니티 간담회 진행 개요

▶ **추진 특징**

– 지역, 연령을 안배하여 지역 구성원 집단 섭외

– 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동아리, 지역민, 대학생, 청소년, 공무원 등 다양한 영역의 집단으로 구성

▶ **회의 내용**

– 금정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 의견 확보

– 자신의 문화생활 및 문화 환경에 대한 변화 기대 사항

– 금정구 문화 환경 평가

– 금정구 문화 발전의 키워드 도출,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 등

▶ **질문 문항**

–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은 어떠신가요?

–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금정구에서 경험했던 문화생활 중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커뮤니티 간담회 명단 (15개 커뮤니티, 120명 참여)

	일자	대상	참석	성격		
1	2.7.	청년예술인	12명	청년	예술	장전동
2	2.12.	밥모임도시락	5명	청년	소모임	장전동
3	2.13.	장성시장 청년사업자	6명	청년	문화경제	장전동
4	3.6.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8명	노년	생활문화	전체
5	3.8.	금샘마을도서관 책마실	6명	중년	동아리	구서,남산동
6	3.8.	생활문화동아리 다하미	6명	중년	동아리	부곡동
7	3.28.	부산대 예술대 학생회	7명	청년	예술	장전동
8	4.3	회동동 도래마을 시니어	10명	노년	생활문화	회동동
9	4.4.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6명	중년	행정	전체
10	4.5.	금샘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명	청소년	생활문화	남산동
11	4.24.	창작촌과 사랑방손님 참가자	8명	중년	예술	서동
12	4.26.	서동 마마유 참가자	7명	중년	생활문화	서동
13	5.4.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7명	중년	생활문화	금성동
14	5.12.	금정청소년수련관	16명	청소년	동아리	전체
15	5.17.	현곡초등학교	6명	중년	교육	전체
합계			**120명**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일자	커뮤니티	참석	참여자 이름
1	2.7.	금정구 활동 청년예술인	12명	김기석, 김민규, 김성원, 엄정식, 김지연, 박가범, 이광혁, 이상민, 이환석, 전건오, 전혜정, 최성민
2	2.12.	장전동 커뮤니티 도시락	5명	김현석, 문나영, 송준빈, 조안나, 조수현
3	2.13.	장성시장 청년사업자	6명	김건우, 김수아, 김희영, 심언아, 황지용, 나까
4	3.6.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8명	김성용, 김슬기, 김재석, 김진희, 손안섭, 신상영, 유선미, 이경석
5	3.8.	금샘마을도서관 책마실	6명	강경미, 박경미, 이미옥, 이수옥, 정진희, 장재선
6	3.8.	생활문화동아리 다하미	6명	강춘식, 김남균, 박성언, 배종구, 양원도, 전성호
7	3.28.	부산대 예술대 학생회	7명	강민아, 강성택, 김기정, 김찬우, 박한나, 손종민, 이유민
8	4.3	회동동 도래마을 공동체	10명	김철민, 김병호, 이업순, 신선희, 장영숙, 박수민, 박필란, 장경련, 장칠만, 김봉희
9	4.4.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및 평생교육과	6명	이미경, 이동자, 남윤미, 김지연(문화관광과), 김맹조, 김지연(평생교육과)
10	4.5.	금샘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명	박도건, 조하늘, 박건후, 이경수, 이성준, 오서진, 장하나, 김해원, 전가은, 방수연
11	4.24.	창작촌과 사랑방손님 참가자	8명	하현정, 조난영, 이수빈, 서영숙, 함수경, 모상미, 권정철, 오엄지
12	4.26.	서동 마마유 참가자	7명	전현미, 조영수, 강미남, 유지희, 박선미, 장귀엽, 서순희
13	5.4.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7명	강윤희, 박소영, 전영주, 공경주, 이은정, 조은안, 차일찬
14	5.12.	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16명	김지운, 이화영, 박진형, 진희진, 신유리, 주성민, 이경빈, 유현선, 권나영, 김지은, 손건희, 황도경, 권지민, 하주원, 김진호, 이지민
15	5.17.	현곡초등학교 교사회	6명	조 황, 곽현주, 홍남희, 박둘복, 이태헌, 이재근
합계			120명	

02

금정문화플랜 수립 참여 구민 의견

1) 구민 의견 요약

▶ 금정구민에게 문화란?

나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댄스업)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김진희)
나를 여유롭게 해주는 것(강춘식)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박성언)
내가 놀 수 있는 놀이터(장재선)
우울할 때 문화를 즐기면 숨이 탁 트이는 존재의 동아줄(정진희)
문화를 즐기기 위해선 움직여야 하고 그때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이미옥)
내가 하는 특별한 경험(강민아)
나에게 활력을 주는 존재(장영숙)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김봉희)
문화를 즐기면 많이 웃고, 잠도 잘 자고 삶이 활력있어 진다(박필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김병호)
쉬는 것, 쉬는 곳(김해원, 전가은)
반복된 일상에서 축적되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박가범)
문화를 통해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의 문화생활은 힐링이다. (유현선)
피곤한 일상 속에서 문화경험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가진다(이태헌)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

일상에서 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심언아)
평생 옆에 두고 싶은 것(MAP)
공기처럼 늘 주변에 있는 존재(김성용)
밥처럼 없어서는 안되고,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필수적 존재(이은정)
허기를 채우듯이 주기적으로 채워야 하는 정서적인 곡기(박소영)
채소와 열매를 키워내는 영양분 많은 흙처럼 사람들을 깨워주는 것(나까)
자연스런 삶의 방식(댄스업)
생활이자 삶이다(조황)
진로를 문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 생활의 반을 차지해서 문화는 1/20이다. (이지민)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가면 갈수록 깊게 탐색하는 과정(모상미)
계속 관련된 일들을 찾아 도전하는 과정(차일찬)
문화를 즐기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진희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신상영)
저녁메뉴 고르듯이 나의 취향에 따라 고르는 자연스러운 것(김현석)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양원도)
내가 해야 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취향(김찬우)
본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박한나)

사람과의 연결고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팀판다)
즐겁고,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것(손안섭)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과 나를 이어주는 것(김슬기)
문화공간에 가면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좋은 추억(배종구)
사람들의 다양함(강성택)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정칠만)
더불어 나누고 공감하는 것(김철민)

쉽게 즐기지 못하는 것

머리로는 필요한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즐기기 어려운 것(유선미)
많이 즐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문화를 즐기는 이들을 부러워 하는 것(전성호)
처음 접하기엔 어렵지만 접하고 나선 매우 만족하는 것(이수빈)
큰 맘 먹고 해야 하는 것, 할 땐 신나게 하는 것(김민정)
여유가 없어서, 나는 즐기지 못하는 느그문화(임예원)
특정 집단이 즐기는 특정한 것
금정구에서 하는 행사들은 규모는 큰 것이 많은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매우 부족하다.(박진형)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이 우선이어서 나를 위한 문화활동이 부족하다(이재근)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박둘복)

▶ 금정구의 특별한 문화?

부산대학로 등 대학 관련

4개의 대학, 집중된 대학가
대학이 많지만 특별한 대학문화 형성은 미비함
대학가 길거리 공연, 부산대 프리마켓
콘텐츠코리아랩 등 대학가 주변 문화공간
장성시장 등 문화상업지구

금정구의 다양한 문화공간

서동예술창작공간 / 예술지구P / 금정문화회관 / 금정청소년수련관

문화관련 프로그램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금정산생명문화축전 달빛걷기(부산민예총)
청년문화박람회(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서동시장 오케스트라 공연 등 서동시장 중심 문화공연
섯골오픈데이 / 옥상피크닉(서동예술창작공간)
금정여성합창단 공연
온천천 금어 빛 거리 등 작은 공연
금성초등학교 별밤가족캠프
홍법사 템플스테이

온천천, 금정산 등 자연환경 및 역사자원

구 전체를 통과하는 온천천
금정산, 금정산 둘레길 등 생태환경
동래여중 벚꽃길, 윤산벚꽃축제
범어사 / 금정산성 막걸리 / 금샘설화

금정구 사람들 및 생활문화 관련

금샘마을공동체, 극단 자갈치, 금정문화사랑방 등 문화관련 집단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금정구민 기획단
도담도담 동화나래. 금빛나래 등 서동 기반 생활문화동아리
마을사람들과 함께 하는 영화상영 등 생활문화활동
달집 태우기(금성동 마을)경호고등학교 노래교실(생활문화교실)

기타

청년시절과 연관된 추억이 많음
학창시절 추억이 있는 서동미로시장
걷기 좋은 도시
카운터 컬쳐 / 청년문화

▶ 더 나은 구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제안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민간과 공공을 잇는 거버넌스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김건우)
일반인과 예술인이 만나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나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 등을 발굴, 지원하면 좋겠다(김성용)
금정구 안의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강민아)
금정구 내 동아리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장영숙)

공간 관련 제안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도시락 문나영)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문화장소가 필요하다(손안섭)
공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이경석)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손종민)
동아리 연습공간 및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양원도)
대학이 4군데나 있지만 대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원이나 광장이 없다(강경미)
대학로 문화나눔터의 위치를 좀더 옮겼으면 좋겠다(손종민)
금정구 내 차없는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이수옥)
금정구에 미술관이 많았으면 좋겠다(이미옥)
아이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정진희)
청소년이 PC방 외에는 즐길 공간이 없다(오서진)
서면의 놀이마루처럼 청소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박건후)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대여 가능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김수아)
마을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김철민)
회동 하천과 같은 개발되지 않은 공간에도 문화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김병호)
문화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이수빈)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공연공간, 연습공간이 필요하다(이화영)

프로그램 관련 제안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많았으면 좋겠다(김진희, 김재석, 장재선)
구민을 위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권정철)
금정구민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이 있었으면(강성택)
작은 규모라도 관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김찬우, 강윤희)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도시락)
생활문화활동 참가자를 위한 축제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오엄지)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도시락, 손안섭)
시니어들의 삶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신상영)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배종구)
지역의 청년문화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큰 행사가 필요하다(소울리스트)
온천천 등 야외 장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여름밤 영화상영 등(박한나)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필요(김남균)
금정문화회관 야외 무대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강춘식)
지역의 소소한 공연도 중요하지만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공경주)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많았으면 좋겠다(이경빈, 박진형)
금정구의 작은 갤러리와 함께 하는 야간투어프로그램이 있으면(이태헌)

민간 활동 지원

마을 도서관 등 민간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박경미)
지역의 생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면(김봉희, 이업순)
민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극적 지원 및 홍보(김희영, 이광혁)
구민이 문화향유를 할 때 필요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박소영)
지역의 예술가, 단체의 활동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모상미)
지역의 작은 문화활동 및 단체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차일찬)
소소한 마을의 작은 공간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마을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전영주)
지역에서 성공한 예술가, 단체 모델이 필요하다(이광혁)
금정구 활동 예술가 및 단체를 지역행사 등에 중용했으면 좋겠다(MAP)
예술인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임대료 안정 등 현실적인 창업 및 주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황지용)

문화정보 제공 및 홍보

금정구의 다양한 예술단체, 문화공간 등의 정보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다(손종민, 이유민, 정칠만, 김철민)
문화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조은안)
해시태그,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정보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이환석)
수요자 맞춤형 문화정보 제공 플랫폼이 있었으면(유선미)
금정구민들이 지역의 문화공간, 동아리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문화지도 등(전성호, 박성언)
문화 관련 구인 구직, 공간 대여 등의 플랫폼이 있으면(박성언)
마을마다 문화활동가가 있서 지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문나영)
마을에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면 좋겠다(이은정)
노인 등 다양한 구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도시락)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와 그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다(댄스업)
어릴때부터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아, 아이들을 위한 문화시설, 행사에 대한 홍보(이재근)

커뮤니티 간담회 수렴 의견들

2) 커뮤니티 간담회 회의록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2월 7일(수) | 장소 : 청년창조발전소 1층

▶ **참석자 : 총 12명**

소속	이름
금정구 활동 청년예술가 커뮤니티	최성민(팀판다), 전혜정(아마존), 김지연 외 1명(소울리스트), 박가범(아트오픈갤러리), 전건오(M.A.P), 김기석, 이환석(처음프로젝트 참가자), 김민규 외 1명(댄스업), 이광혁(루츠레코드), 박승빈(금정문화재단 창작사업팀)
합계	**12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문화생활을 평가한다면?

- 그저 그렇다(소울리스트)
- 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댄스업)
- 문화가 존재하지만 나에게 와닿는 문화가 없다
- 뭐가 많긴 한데 땡기는 게 없다. 공연장도 많고, 마켓도 하고, 문화단체도 많지만, 나에게 와 닿는 것이 없다, 좋은 기획이 잘 없다. (루츠레코드)
- 관 기반의 문화 vs 자생적 문화 : 관에서 진행하는 문화와 자생적 문화가 있는데 기초적 결합 수준인 것 같다. 아직 분리되어 있다. (박가범)
- 행복 but 부족함 : 콘텐츠가 많거나 문화단체들이 모여 있어도 시너지가 별로 없다.(M.A.P)
- 재미가 있음 :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즐겁다.(팀판다)
- 애매하다 : 킬링콘텐츠가 부족하다.(박승빈)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친구 : 의식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존재. (아마존)
- 친숙하고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것 : 문화 행위 자체이고 자연스런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함. 행사보다는 일반인이 느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일 거라고 생각함(댄스업)
- 평생 옆에 두고 싶은 것 : (M.A.P)
- 공동체 : 개인적으로 작가들의 모임을 하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팀판다)
- 고향 : 지금은 춤을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댄스업)
- 반복된 일상에서 축적되는 것들을 해소 : 일반인들에게 문화가 그렇게 쓰이고 있을 것,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문화라고 생각. (박가범)
- 힘들다 : 노래를 하는데, 새로운 모습, 항상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이 힘들다 (소울리스트)
- 고민거리 : 문화예술을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예전에는 즐거웠는데, 지금은 고민거리가 되었음(처음프로젝트 김기석)

- 돈덩어리 : 장비도 사고,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즐기려면 또 비용이 든다 (소울리스트 김지연)
- 특정집단이 즐기는 특정한 것 : 예술만이 문화는 아니다. 청년문화, 술문화 등 집단별로 문화가 있지 않을까
- 생활 : 원래는 좋아서 시작했는데 일상생활이 되었음 (박승빈)
- 경험 :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해서, 다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 나의 경험은 문화가 대부분 (처음프로젝트 이환석)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말이 많아도 청년문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듯. 예전에는 부산에서 제일 활발했지만, 지금은 서면이나 경성대에 그 자리를 많이 내어준 것 같다. (루츠레코드)
- 특별히 없다.(다수)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메이저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 롤모델,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함. 양보다 질, 공연장이 제대로 된 곳이 없다. 투자도 필요(루츠레코드)
- 스케일 큰 행사가 필요 : 청년문화가 많은데, 이를 보여줄 만한 큰 행사가 필요(소울리스트)
- 금정구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을 중용해야, 서운함에 능동적으로 협업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M.A.P)
- 접근성 개선 :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팻말, 맵 등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집중해서 해주면 좋을 듯(처음프로젝트 이환석)
- 공간 : 작업할 공간이 필요 (처음프로젝트 김기석)
- 사업비 양보다는 질 : 예술인이 10년–20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사용
- 관에서의 홍보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촌스러울 때가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그리고 플랜 관련해서는 이 자리가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결과를 예술인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술인들이 느낀다면 활동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될 것(댄스업)
- 온천천 그래피티와 같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 없애지 말고 살리는 전략을 해 주셨으면 (루츠레코드)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2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2월 12일(월) | 장소 : 장전동 부바음악

▶ **참석자 : 총 5명**

소속	이름
밥모임 도시락	김현석, 문나영, 송준빈, 조안나, 조수현
합계	**5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문화생활을 평가한다면?

- 아이를 낳고나니 개인적인 문화생활이 정체된다.
- 금정구는 문화생활의 출발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 공연, 전시는 많지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다.
-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접하기 어렵다는 느낌이지만 막상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다. 숨은그림 찾기 같다.
- '어디에 가면 언제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늘 흘러가버리는 행사 중심인 것 같다.
- 남들이 다 하는 프리마켓이나 공연 행사들만 있고, 금정구만의 특징이 없는 것 같다.
- 아이와 엄마가 함께 즐길만한 콘텐츠가 없다.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내 주변, 내 관심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 예술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로 느끼고 있다.
- 점심때 '저녁에 뭐먹지?'라는 생각을 하듯이, 내 취향에 따라 고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 건조한 공기를 버틸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갑갑해 지듯이, 문화는 일상을 촉촉하게 해주는 가습기 같다.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실제로는 공연이 많다. (부산대 예술대 기획 공연 등) 그러나 이런 작은 공연들을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온천천, 작은 공원 등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청년 문화가 있긴 하지만 놀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24시간 활발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 높은 산이 있고 하천이 구 전체를 통과하는 지역은 많지 않다.
- 생각보다 숨겨진 예쁜 공간들이 많다. 아기자기한 맛집과 즐길거리가 많다.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누구나 밥을 가져와서 자유롭게 모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
- 동네마다 활동가가 있으면 그 동에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이야기 하는 시스템이 생길 것 같다.
-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공연이나 전시를 많이 개최 한다고 해서 모두 그 공연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공연을 즐기는 법”을 교육한다던가, 문화생활은 ‘사치’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문화홍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인기 키워드들을 해쉬태그 단다던지,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 좋겠다.

커뮤니티 간담회 진행모습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3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2월 13일(화) | 장소 : 장전동 아르스커피

▶ **참석자 : 총 6명**

소속	이름
장성시장 사업자	김희영(아스트로북스), 김건우(재미난복수), 황지용(개인의취함),김수아(복수가게), 심언아(아르스커피), 나까(나유타까페)
합계	**6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문화생활을 평가한다면?

- 별일없이 일만한다. 이웃과 소소히 어울리는 문화가 전부(아스트로북스–김희영)
- 문화를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쉽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나유타카페–나까)
- 가난하다. 금정구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자 대학생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다.(아르스커피, 심언아)
- 일 때문에 힘들어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장점이라면 지역상점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복수가게–김수아)
- 마음만 굴뚝. 자본문제 때문에 생각을 현실화하기가 어렵다.(개인의취함)
- 곳곳이 복작복작하다. 무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김민정)
- 어? 여기도 있었네 외부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문득 발견하는 곳(임예원)
- 선인장. 사막같은 문화환경에서 독특한 문화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곳(재미난복수–김건우)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목적 : 문화는 삶의 목적이다. (개인의취함)
- 흙 : 영양분이 많은 흙이 채소와 열매를 키워낸다. 그런 근본적인 것, 사람들을 깨워주는 것 (나유타카페–나까)
- 여행 : 일상이고 싶은데 여행인 것(복수가게–김수아)
- 큰 맘 먹고 해야 하는 것, 할땐 신나게 하는 것 (김민정)
- 일상 :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아르스커피, 심언아)
- 맛있는음식 : 살려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취향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에 문화를 빗댈 수 있을 것 같다..(재미난복수–김건우)
- 사람들이 즐겨야 내가 먹고 사는데, 독서문화 왜 안즐겨주시나요. 문화는 즐겨야 하는 것이다. (아스트로북스–김희영)
- 느그문화 : 느그욜로처럼, 여유(경제적, 마음적)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느그문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게 된다(임예원)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무한한 가능성이 정치와 행정의 무능으로 무한히 억눌린 곳 :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해서 문화적 공간이 없다(공원, 놀이터, 도로 등) (개인의취함)
- 그래도 평균이상 : 가게 단골손님에 비교해보니, 연산, 전포동이나, 대구 등의 지역에 비교해서는 주

민분들이나 생업관련 책읽는 인구가 많다. (아스트로북스–김희영)

- 대학생 다국적 문화 : 대학이 4개,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나유타카페–나까)
- 하나로 모아지는 키워드가 없다는 점이 특별 : 문화적 원천(소스)가 많다.(아르스커피, 심언아)
- 찾고 있습니다(김민정)
- 추억과 스토리가 있는 곳 : 청년시절을 보낸곳이라서 스스로의 추억과 스토리들이 생각나서 돌아오고 싶어하는 곳이다(임예원)
- 카운터컬쳐 : 반문화라는 뜻인데, 적응못하고 삐뚤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청년문화(재미난복수–김건우)
- 장전동 안 개구리라 잘모르겠다.(복수가게–김수아)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젊은 사장을 지원, 머무를 수 있는 놀이터, 공터가 만들어졌으면, 일반인들도 예술인을 만나고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나유타카페–나까)
- 임대료안정, 현실적 창업 및 주거지원 :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문화를 향유할 계층의 힘이 부족해진다. 의미가 없다.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진행해달라(개인의취함)
- 나 자신의 문화생활보다, 구민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ex.작가초청(아스트로북스–김희영)
- 깨끗한 거리, 대여가능한 문화공간이 필요 :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놀이터, 공터와 같은 개념이다. 온천천정비도 예가 될 수 있을듯(복수가게–김수아)
- 가시적인 행사위주의 예산배정이 아닌,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상인의 입장에서, 작은가게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아르스커피, 심언아)
- 재단본연의 역할에 충실, 잘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 :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 (재미난복수–김건우)

금정문화재단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이런 지속적인 간담회와 함께 간담회 결과에 대한 재단쪽의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개인의취함)
- 이런 간담회와 같이 접촉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아스트로북스–김희영)
- 행정적 어려움에 대한 채널역할을 재단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나유타카페–나까)

마무리

- 간담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가장 큰 기대감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윈윈했으면 한다(아르스커피, 심언아)
- 스스로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문화와 도시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자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나유타카페–나까)
- 재단이 스스로의 색깔을 확고하게 만드는 작업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재미난복수–김건우)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4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3월 7일(화) | 장소 :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 **참석자 : 총 8명**

소속	이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김진희(사무국장), 유선미(교육팀장), 김슬기(교육팀)
자원봉사자	김재석(시민동호회 센터지기), 신상영(사학퇴직교원 봉사단) 이경석(충렬색소폰연주단), 김성용(바보클럽 사무국장) 손안섭(사학퇴직교원봉사단)
합계	**8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은 어떠신가요?

- TV : 워킹맘이라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TV 밖에 없다. 엄마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워킹맘들은 참여할 수 없는 낮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이 전부다. 워킹맘들을 위한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유선미)
- 정보교육 : 스마트 폰으로 모든 문화예술 정보가 올라와서, 정보에 대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는 것 같다. 정보교육이 절실하다. (신상영)
- 생활의 여유 : 어릴 때는 돈이 없고, 나이가 들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문화를 즐기기 어렵다.(김재석)
- 우리들만 아는 소중한 자원, 공유하는건 힘들어 : 자원봉사센터는 문화 단체, 인력,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데, 각 단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자 하지 않는다. 덧붙여 금정구 자원봉사자들만을 위한 공연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진희)
- 영화, 체험학습 :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문화체험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문화체험 또한 업무(체험)의 연장이다.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김성용)
- ?비용! : 봉사를 하러가도 받는 분들이 '비용을 내야하는 건지' 하고 겁을 낸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무료가 많은데 사람들이 겁을 낸다.(이경석)
- 관심도 : 남녀 간 문화에 대한 관심 차이가 많이 난다. 남성들의 문화, 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손안섭)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공기 : 문화는 늘 주변에 있는 존재인 것 같다. 사고를 유연하게 하면 모든 것이 문화가 될 수 있다.(김성용)
- 삶 :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문화인 것 같다. (김재석)
- 선택 :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문화다.(신상영)
- 즐거움 : 즐겁고, 옆 사람도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것이 문화의 장점이다. (손안섭)
- 쉬는 시간 :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김진희)
- 가끔씩 필요한 존재 : 굳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가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과 매개가 되기 때문에 좋다. (김슬기)

- 이론≠현실 : 머리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유선미)
- ?시간 : 삶에 여유가 없어서 영화를 못 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최근에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다. 문화를 즐기기에는 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경석)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세대 : 부산에서 학군 좋기로 유명한 곳이 금정구다. 아이들이 많다보니, 젊은 부부도 많고, 대학생, 노년 층 등 다양한 세대들이 어우러져있다. 문화가 이 모든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선미)
- 역동적이다 : 회식을 하면 60-70년대에는 범어사 백숙을 먹었고, 80년대에는 오륜대 향어를 먹었다. 90년대에는 금정산성에서 염소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모든 세대가 어울려 노는 곳이 금정구였다.(김재석)
- 생태문화 : 금정구는 산과 숲이 있어서 공기가 좋다. 순창군 건강관리 연구소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문화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신상영)
- 젊다 : 대학생들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젊고, 축제에 가면 어르신들이 참 많으셔서, 연령에 상관없이 지역민들이 마인드가 젊으신 것 같다.(김슬기)
- 활동 : 금정구는 교통문화가 편리하다. (손안섭)
- 거리 : 금정구가 의외로 넓어서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멀다. 금사동, 서동과 같은 곳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경석)
- 역사축제 : 역사와 관련된 축제가 많은 것 같다. 덧붙이자면, 역사축제라고 해서 너무 토속적으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김진희)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네이버 & 배려 :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 기관들의 문화정보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인처럼 문화정보들이 수요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쌍방 소통이 되는 정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유선미)
-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 :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취미클럽,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재단에서 잘 관리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봉사단체를 운영해보니, 조직의 목적 자체보다는, 모임 안에 보이지 않는 친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김성용)
- 동네에서 숨쉬는 문화 소통 :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안에서 문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서동예술창작공간의 경우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공간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김진희)
- 다양화 :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손안섭)
- 장소 :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문화예술 장소가 필요하다. (손안섭)
- 공연장소 : 섹소폰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아쉽다. (이경석)
- 정보공유 : 문화행사, 축제가 있어도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다.(김슬기)
- ? : 일상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세대를 거쳐서 이어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재석)
- 건강연구, 친절교육 :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니어들의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신상영)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5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 장소 : 금샘마을도서관

▶ **참석자 : 총 6명**

소속	이름
금샘마을공동체–책수다모임	이수옥, 박경미, 이미옥, 정진희, 강경미, 장재선
합계	**6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은 어떠신가요?

- Movie : 나에게 문화생활은 일주일에 1번 관람하는 영화인 것 같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공연이나 전시관람은 멀어지는 것 같다.(박경미)
- 금정문화회관 : 금정구로 이사 온 뒤 가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들을 해서 한 번씩 이용한다.(장재선)
- 돈이 필요해 : 서울에 살 때는 예술의 전당으로 나들이를 많이 갔다. 꼭 돈을 내고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전당 로비나 공원에서 실황을 볼 수 있었고, 공공미술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금정문화회관에서는 주차장만 있고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강경미)
- 땅콩 : 문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이런 모임 자체가 문화인 것 같다. 작지만, 소소하고, 고소한, 쌍방이 소통하는 문화를 현재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생활문화가 진정한 문화인 것 같다.(이수옥)
- 생수 : 목마르면 찾는 곳이 이 곳이다. 나에게는 생수같이 일상 속에 꼭 필요한 모임인 것 같다.(이미옥)
- 보물찾기 : 금정구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찾으려는 노력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같다.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것 같다. (정진희)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생명 : 문화를 업으로 했었고, 문화를 내 인생에서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다. (이수옥)
- 장신구 : 문화라는게 없어도 살아지지만 많이 향유할수록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문화를 즐기면 100배 예뻐지는 것 같다.(강경미)
- 놀이터 : 문화생활을 하면서 논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즐기는 곳이 내가 노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장재선)
- 조기교육 : 공연이나 전시를 보면서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지는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문화를 잘 즐기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박경미)
- 존재의 동아줄 : 삶에 많이 지쳐있고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우울할 때 문화를 즐기게 되면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든다. 미술을 전공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정진희)
- 움직임 : 나이가 들어가면서 움직이기가 싫어진다. 문화를 즐길 때면, 움직여야 하고, 그럴 때 살아있는 느낌이다.(이미옥)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둘레길 : 금정의 문화는 특별한 것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것이 산성둘레길인데, 둘레길에 스토리텔링이 없는 것 같다. 동래읍성은 그런 것이 잘되어있다. 뭐라도 적혀있으면 아이들과 산책하면서 놀이하기에 좋은 것 같다.(강경미)
- 대학가 길거리 공연 : 대학가 공연을 보면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가 활기차 보이기도 한다.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장재선)
- 유적? : 범어사가 생각났다. 가는 길이 예쁘고,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재인 것 같다.(정진희)
- 부산대 : 옛날에는 부산대에 갈 때마다 공연을 했었다. 아마도 NC 백화점이 생기면서 상업지구화 되었던 것 같다.(박경미)
- 걷기 : 다른 구에 비해서 금정구가 참 걷기 좋고 공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 살기좋은 도시인 것 같다.(이미옥)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생활문화의 활성화 : 거창한 공연이나 공간도 중요하지만 장성시장의 사례처럼, 생활과 가까운 곳에 문화가 있으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장재선)
- 공원 : 대학이 4군데나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원이나 광장이 없다. (강경미)
- 차 없는 거리 : 외국어대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동네가 뭔가 특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하루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가 되면 획기적으로 다른 문화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시도해 볼만 한 도전이라 생각한다.(이수옥)
- 미술관 : 금정구에도, 센텀처럼 미술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술관을 가려면 늘 멀리 가야하는 것 같다.(이미옥)
- 도서관 : 금정도서관은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리를 차지하기도 미안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마을도서관은 임대료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운영이 어렵다. 계속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박경미)
- 아이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간 : 아이들과 이 주변을 돌다보면, 놀이터도 부실하고 뭔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정진희)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6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 장소 : 극단 자갈치

▶ **참석자 : 총 6명**

소속	이름
생활문화동아리 다하미	양원도, 배종구, 강춘식, 김남균, 박성언
극단 자갈치	전성호
합계	**6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은 어떠신가요?

- 휴식 :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고 집안일도 하다가 한번 씩 동아리에서 문화생활을 한다. 이것 자체가 나에게 휴식이다.(박성언)
- 만족 : 목요일에 하루 자갈치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에 만족이 된다. (배종구)
- 쉼 : 다하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멤버들과 이야기하고 즐기는 것이 쉼이다.(전성호)
- 참여 : 재단, 단체들은 많지만 정보가 많지 않아서 참여가 어렵다. 그게 아쉬워서 참여라고 썼다. (김남균)
- 주위에 많은데 나는 참여하지 못함 : 문화회관이 가까이 있고, 자녀들도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즐기기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다.(강순식)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부러움 : 많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즐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많이 즐기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는 것 같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것 같다. (전성호)
- 나를 여유롭게 해주는 것 : 친구들이 내가 이런 동아리를 한다는 것을 보고, 여유롭다고 부러워 한다. (강춘식)
- 추억 : 문화공간에 가면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늘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배종구)
- 내 삶에 중요한 일부분 : 내 생활에 중요한 일부분인 것 같고 삶 자체인 것 같다.(박성언)
- 휴식 : TV 보고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인 것 같다. (양원도)
- 아직 부족 : 목요일 잠시 하는 동아리 생활 외에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배종구)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자산이 많다. : 옛날에 금정산을 중심으로 한 금샘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멋있었다. 자갈치와 같은 전통이 오래된 극단도 있고, 지역에서 오랜 명맥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금정구의 자산인 것 같다.(박성언)

-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 1회 막걸리 축제에 참여했었는데, 금정산성 막걸리를 다른 지역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산성막걸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만한 명물인 것 같다. (강춘식)
- 금정산 : 다른 구에 비해서 금정산에 얽힌 신화가 있는 것 같다.(전성호)
- 자연환경 : 한 달에 한 번 산행모임이 있다. 모일 때 마다 산행 길을 찾는데, 금정구는 다른 구에 비해 산행길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다.(양원도)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소통(문화지도) : 문화 행사들이 많은데,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소통과 홍보가 잘 되어서 금정구민들의 머릿속에 대충의 문화 지도가 그려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전성호)
- 빈민촌을 위한 배려 : 부곡동 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보고'이런 마을이 있구나'하고 많이 놀랐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배종구)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해 주셨으면 : 문화생활도 이런 동아리를 해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아예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첫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재단에서 이런 분들에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같이 지역 동아리는 신입멤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 동아리 지도"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박성언)
- 계절, 문화, 행사, 정보, 유적 : 문화행사는 봄, 가을 등 날씨 좋을 때만 하는 것 같다. 4계절 별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제 같은 행사만 하지말고, 행사와 지역 관광 자원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역사축제–범어사 역사탐방 연계) 금정구 곳곳에 여러 문화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김남균)
- 구에서 관여하는 문화센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사설 동아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 금정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인디밴드 공연 하는 걸 봤다. 너무 좋은 공간인데, 평소에는 너무 공간이 놀고 있다. 비어 있을 때 지역 동아리가 지역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강춘식)
- 장소 : 우리 같은 동아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갈 수 있는 문화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양원도)
- 구인구직 : 봉사하고 싶은 사람, 공연이 필요한 사람, 공간이 필요한 사람, 공간을 써줬으면 하는 사람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구청에 구인구직 란이 있는 것처럼, 공연이 필요한 곳, 공간이 필요한 사람 등이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박성언)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7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3월 28일(화) | 장소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 **참석자 : 총 7명**

소속	이름
부산대 예술대학 학생회	강민아 (예술대 학생회장) 이유민 (한국음악학과 학생회장) 김기정 (미술학과 학생회장) 김찬우 (예술문화영상학과 학생회장) 강성택 (예술문화영상학과 부회장) 박한나, 손종민 (예술문화영상학과 동아리장)
합계	**7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사려깊음 : 대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금정구에 왔다. 금정구는 다른 지역보다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콘텐츠코리아랩)이 많고, 값이 싼 식당들도 많다,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다. (강성택)
- 아는 사람들만 아는 파티 : 금정구에서 문화 활동이 활발한 것 같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민아)
- 등잔 밑이 어둡다 : 온천천을 자주 걷는데,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김찬우)
- 일상 : 영화보고, 책보고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문화인 것 같다. 나 또한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박한나)
- 아쉬움 : 분명히 있을 것은 다 있는데, 해운대, 광안리와 같은 문화와는 다른 2% 부족한 느낌이 있다. (손종민)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나랑 친해지는 가장 큰 원동력 : 수업, 버스 등은 '내가 해야 하는 정해진 것'이지만, 문화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이다. '나만의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김찬우)
- 이야기 :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것이 다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본인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한나)
- 특별함 : 일상에서 내가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가 될 수 있지만, '문화'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경험(공연, 이벤트)이 떠오르는 것 같다. (강민아)
-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 문화를 즐길 때 온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손종민)
- 사람들 :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문화도 다양해서 통일될 수 없는 것 같다. (강성택)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대학 : 가장 대학이 많은 곳은 사실이지만, 대학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은 거지, 특별한 대학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강민아)
- 금정구, 사람들 그리고 나 : 금정구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정구에 살고 있는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금정구만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강성택)

- 고유의 색들이 뚜렷한 곳 : 동네들에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게 있다. 어디 하나 튀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고만고만한 색들이 많은 것 같다. (김찬우)
- 젊다 : 대학이 많고 젊은 층이 많다.(박한나)
- 평범함 : 부산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금정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곳이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평범한 주거지라는 생각이 든다.(손종민)
- 모르겠다 : 금정구만의 문화라고 느껴지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한다.(이유민)

당신이 경험했던 금정구에서의 문화생활 중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콘텐츠코리아랩 : 매주 모이는 동아리활동을 하면 장소가 자주 필요하다. 카페나 스터디룸을 가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코리아랩과 같은 공간에 매번 고마움을 느낀다. (손종민)
- 장성시장 : 장성시장에 동아리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장성시장에 갈 때마다 트랜디하고 멋진 청년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공간이다. (김찬우)
- 버스킹공연 : 온천천을 걷다보면 한 번씩 버스킹 공연을 하는 걸 보게 된다. 선선한 날씨에 음악이 들렸을 때 참 좋았었다. (이유민)
- 합창단 : 촬영 때문에 금정문화회관에서 여성합창단 공연을 간 적 있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이 모두 드레스를 입고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일반인들이 문화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다. (박한나)
- 온천천 : 지하철을 탈 때뿐만 아니라 온천천 길로 많이 걷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문화를 이야기할 때 온천천을 뺄 수가 없다. (김기정)
- 온천천 금어 : 금어빛거리를 가봤을 때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거리'만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부대행사들이 없었던거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강민아)
- 밤 : 금정구는 밤에 어둡지 않고 생동감 있고, 건전한 느낌이다. 밤에 반짝이는 온천천도 금정구의 메카라고 생각한다. (강성택)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문화나눔터 : 1번 출구 문화나눔터 위치가 너무 애매하다. 아주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니고 민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도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손종민)
- 야외에서 심야극장 : 온천천에 벽이 많아서 여름밤에 빔을 쏴서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 (박한나)
- 이대로 : 이대로도 좋은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인터플레이나 몽크와 같은 클럽들이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공연을 보고 싶으면 경성대쪽으로 가야해서 그게 많이 아쉽다. (김기정)
- 친밀감 형성 : 금정구에 다양한 예술 단체들이 있음에도 무얼 하는지 모른다. 문화공간(예를들어 문화나눔터)에서도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소음이 되는 것 같다. (손종민)
- 랜드마크 : 남포동 하면 떠오르는 거리가 있고, 해운대 하면 '더베이101'과 같이 딱 장소가 있다. 그런데 금정구는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는 것 같다. (손종민)
- 예술 관련해서 뻔하지 않은 문화행사들을 만들어주세요. : 유행에 따라(예를들어 셀카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행사)하는 행사들이 아닌, 뻔하지 않은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강성택)
- 지나치면서 보이는 무언가가 많았으면 : 금정구를 대표할만한 엄청난 행사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장소에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눈에 밟혔으면 좋겠다.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잦아지면 문화적인 도시가 될 것 같다. 문화가 큰 행사가 아닌 일상과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찬우)
- 홍보 : 좋은 버스킹과 공연들이 많은데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유민)
- 네트워킹 : 어디에도 천재적인 기획은 없는 것 같다. 지금 금정구 안에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너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지점이 중요한 것 같다. (강민아)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8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4월 3일(화)	장소 : 캠퍼스D 언더그라운드

▶ **참석자 : 총 10명**

소속	이름
회동동 도래마을 공동체	김철민(도래마을공동체 회장), 김병호(도래마을 공동체 노인회장), 이업순(공동체 총무), 신선희(공동체 고문),장영숙(공동체 풍물팀장), 박수민, 박필란, 장경련, 장칠만, 김봉희
합계	**10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만족한다 : 풍물동아리 활동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다 보니, 삶의 질이 달라졌다. (장경련, 박필란)
- 보통으로 생각한다 :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통이상 인 것 같다. (김병호)
- 금정문화재단의 실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다. : 금정문화재단에 대해 처음 들었다.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김철민)
- 여러모로 만족하고 있다 : 마을활동이 활발해서 만족하고 있다.(정칠만)
- 바빠서 참여하기 힘듦 :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신선희)
- 풍물 좋~다! : 금정문화원에서 하는 금정산성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았다. 그런 행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장영숙)
- 우리 동네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DRB 공간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 회동동에 문화시설이나 행사가 잘 없다. 최근 생긴 DRB(CampusD)를 많이 활용해서 전시나 공연을 해주시면, 많이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이업순)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애인 : 애인을 안 보면 보고 싶은 것 처럼 문화 활동도 안하면 하고 싶고, 애인 같이 좋다.(장경련)
- 활력소 : 풍물강사를 하면서 열정적인 회원들을 보면 그것이 또 나에게 활력이 된다. (장영숙)
- 힐링, 공간, 분위기 :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문화로 풀 수 있는 것 같다. (김봉희)
- 즐기는 것 : 할 때 마음이 즐거운 것,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신선희)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문화를 즐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문화가 있으면 삶에 질이 올라간다. (이업순)
- 생활의 활력소다. : 문화를 즐기면 많이 웃고, 잠도 잘 자고 삶이 활력 있어 진다. (박필란)
- 생활 자체가 문화이다. :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문화다.(정칠만)
- 더불어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다. : 문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철민)
-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문화인 것 같다.(김병호)

당신이 경험했던 금정구에서의 문화생활 중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서동시장 오케스트라 공연 : 생각지도 않은 시장 골목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만난 적이 있다.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공연이다.'라는 편견을 깨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요즘에는 안 해서 아쉽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 모인 기금으로 공원에서 어르신 국수 나눔을 한적 있다. 국수를 드리면서 단원들과 함께 풍물공연도 하고 오카리나 봉사동아리도 섭외해서 함께 했는데, 참 좋았다. (신선희)
- 서동예술창작공간 영화상영 : 서동에서 하는 난타공연, 영화상영 등에 참여했는데, 참 좋았다. (김봉희)
- 예술지구P : 예술지구P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2번 가봤다. 예술지구P에서 영화 상영도 해서 택시운전사 영화도 본 적 있다. (김철민)
- 경호고등학교 노래교실 : 경호고등학교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하고 있다. 참여하면 늘 재미있다.(박필란)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풍물 선생님 한 분만 있어서 아쉽다. : 풍물 선생님이 주민 강사시다. 한 분이 하시기에 힘드신 것 같고, 지원 되지 않아서 전문 선생님이 오시기 힘들다. 전문강사 지원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김봉희)
- 회동하천과 같은 공간활용 : 회동 하천 쪽 운동하는 공간이 있다. 그런 보석 같은 공간에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김병호)
- 동아리 네트워크 공유 : 우리는 2년차 동아리인데, 금정구 동아리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보니, 주변 동아리들을 잘 모른다. (장영숙)
- 우드버닝 지원 : 회동 도래마을 안에 우드버닝 동아리 팀이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 지원이 없다보니, 배우는 데 한계가 있고, 심화과정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사람이 없다. (이업순)
- 홍보 많이 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 금정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화행사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정칠만)
-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 금정문화재단 활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김철민)
- 마을편의시설 : 이 동네에는 제대로 된 슈퍼도 없고, 학교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약국도 잘 없어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한다. 주변에 보건소, 약국과 같은 편의시설이 절실하다.(김철민)
- 많은 공연을 했으면 : 마련되어있는 장소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는 공연을 보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한다.(장경련)
- 공유 : 회동 도래마을 밴드가 있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올려 주시면 마을 주민 분들에게 정보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선희)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9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 장소 : 청년창조발전소 1층 카페

▶ **참석자 : 총 6명**

소속	이름
금정구청	이미경(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이동자(문화관광과 공보팀장), 남윤미(평생교육과 세계시민교육팀장), 김지연(문화관광과), 김맹조(문화관광과), 김지연(평생교육과)
합계	**6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꺠알같은 재미 : 결혼 전에는 해운대와 서울과 같은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금정구에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갈 수 있는 주변 행사들을 찾다보니, 여러모로 깨알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잘 즐기고 있다. (김지연_평생교육과)
- 인생목표 : 몇 년 전부터 친구들 4명과 문화회관에서 함께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문화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야간 기타교실을 다니기도 했는데,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문화를 하나하나 즐기는 것이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다. (이동자)
- 겨울 : 겨울에는 밖에 나가기 싫고 따뜻한 집에 있고 싶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즐기러 나가고 싶지만 막상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김맹조)
- 출퇴근길 :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날이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온천천을 따라 출퇴근할 때 그 길에서 나름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남윤미)
- 우연히 만남 : 부산 대학로에서 학생들이 하는 공연을 우연히 만났을 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문화가 내 나름의 문화생활인 것 같다. (김지연_문화관광과)
- 희망 :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까지 문화라는 말이 생소했고 잘 즐기지 못했다. 그런데 업무로 문화를 하다보니 나름 즐기는 기회도 생기고 문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미경)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나만의 색깔 : 문화는 다양한 취향이 있다. 나에게 잘 맞는 것을 만났을 때 즐거움이 더 큰 것 같다. 문화를 즐기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다. (이미경)
- 탈피 : 남편과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뭘 할까' 생각하면 늘 문화를 즐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만의 고요함을 탈피하는 것이 문화인 것 같다. (김지연_문화관광과)
- 노력 : 향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게 문화인 것 같다. (남윤미)
- 오랜친구 : 오랜 친구처럼 언제 만나도 항상 좋고, 편안한 게 문화이다. 헤어질 때 아쉽긴 하지만 '오늘 하루 행복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동자)
- 접착제 : 문화는 저와 가족을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접착제인 것 같다.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다보면 늘 문화가 답인 것 같다. (김지연_평생교육과)

- 현실 : 문화관광과에 있다 보니 문화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다. 금정문화회관이 생겼을 때는 정말 뿌듯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가지는 것 같다. 의무적으로 가야해서 가는 문화행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화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김맹조)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금정문화재단 : 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보다 금정문화재단이 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금정문화재단이 있는 것이 금정구가 특별한 이유인 것 같다. (이동자)
- 문화예술교육특구, 다양성 : 금정구가 문화예술교육 특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되고 나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금정문화재단이 생긴 것도 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남윤미)
- 외국인 대학생 : 금정구에 있는 4개 대학에 외국인 대학생들이 정말 많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현지 맛 집을 가고 싶듯이, 외국인 대학생들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의 공무원과 1명의 외국인 대학생을 연결해서 금정구 적응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지연_평생교육과)
- 부산대학로 숨은 젊은 예술가 : 부산대학로를 중심으로 기존에 활동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도 많지만, 그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 동아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예술가들까지 다 함께 부산대학로 앞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지연_문화관광과)
- 다양한 문화시설 : 문화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생긴 것 같다. 다른 구 보다는 문화적 인프라가 많은 것 같다. (김맹조)
- 금정산성, 금샘예술제 : 역사가 있어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금정산성은 금정구의 큰 역사적 자산이다. 작년 금샘예술제를 보면서 비싼 금액의 공연 못지않게 예술제 음악회가 좋았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 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주민들의 흥미가 떨어지는게 없지 않지만, 공연의 질을 홍보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경)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주민의 목소리, 지역 계층에 맞는 시책 만들기 : '문화가 있는 날'에 직장으로 찾아와서 듣는 공연이 참 좋은데, 구청에 잘 듣지 않는 직원들이 많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과 공연이 있어도, 그 장소에 맞는 시책이 필요하다. 서동에서 하는 행사들을 한 번씩 보는데,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지역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동자)
- 찾아가는 홍보, 선택과 집중 :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홍보 효과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는 것도 홍보의 결과이다. 부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이다. 무엇이 우리 구에 맞는지를 생각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윤미)
- 더 많은 공연 개최 : 관내에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작년 가을에 온천천을 지나가다가 거리예술축제를 본 적이 있다. 공연이 너무 수준 높아서 혼자보기 아까웠다. 서동에서 진행하는'문화가 있는 날'행사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참 좋았다. (김지연_평생교육과)
- 금정의 문화리더의 역할 :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다. 권역별로 주민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리드해서 기획해줬으면 좋겠다. 비전문가들이 짜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문화재단)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경)

- 내실을 다지고 열매를 : 나무 열매를 생각해보면,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 과실이 크지 않고 맛이 없다. 금정구 문화행사들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기 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들에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김맹조)
- 예술가와 시민, 희망을 담은 다리 :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다보면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외면을 받고,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가에게 외면을 받는다. 재단에서 예술가와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문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지연_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 금정구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이다. 금정문화재단이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을 쌓으려면, 예술가,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경)
- 문화에 대해서 말을 뱉어본 적이 없어서,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김지연_문화관광과)
- 오기 전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막상 와보니 얻어가는 것이 많다.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있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다. (남윤경)
-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해보는 것이 공무원이 되고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좋은 간담회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동자)
- 나에게는 문화가 일이 되었는데, 문화재단이 대하는 문화가 깊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플랜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들었다. (김맹조)
- 작년에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함께했을 때 참 좋았다. 앞으로도 함께 재단과 협력할 수 있는 일들에 범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김지연_평생교육과)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0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 장소 : 금샘지역아동센터

▶ **참석자 : 총 10명**

소속	이름
금샘지역 아동센터 (중고생 반)	박도건, 조하늘, 박건후, 이경수, 이성준, 오서진, 장하나, 김해원, 전가은, 방수연
합계	**10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게임 : 주로 게임만 한다. (박건후)
- 게임 :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주로 한다. (이경수)
- 놀러가기 :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야구도 본다. (장하나)
- 놀기 : 부산대나 서면에서 노래방을 주로 간다. (김해원)
- 놀기 : 그냥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노래방을 간다. (전가은)
- 놀기 :먹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친구들과 같이 보낸다. (방수연)
- 먹기 : 먹는게 재밌어서 식도락을 즐긴다. (박도건)
- 잠 :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서진)
- 부산대 : 부산대에서 당구를 치거나, 시간을 보낸다. (조하늘)
- 축구 : 축구에 가장 꽂혀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성준)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쉬는 것 :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곳이다. (김해원)
- 쉬는 곳 : 문화가 마음이 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가은)
- 쉼터 :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활동이다. (장하나)
- 고속도로 : 평소에는 뻥뻥 뚫려있는 곳이다가, 즐기려고 하면 꽉꽉 막혀있다. (조하늘)
- 물 : 사람이 살기 위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 (이성준)
- 공기 : 공기가 없으면 못살 듯이 문화생활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박도건)
- 돈 : 돈이 없으면 즐길 수 없다. 문화도 돈이 든다. (오서진)
- 친구 : 친구는 중요한 존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다. 문화도 중요한 존재다. (방수연)
- 주말 : 주중에는 학교만 다니는데, 주말이 되면 너무 좋으니까. (이성준)
- 휴일 : 공부하다가 문화생활을 하면 휴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경수)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볼링 : 부산대에서 사촌들이랑 가서 새벽에 쳤을 때 가장 신났다. (박도건)
- 볼링 : 부산대에 갈때마다 볼링을 쳐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이경수)

- 스포츠 : 가장 좋아하는 게 스포츠라서, 나는 한화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스포츠이야기를 많이한다. (이성준)
- 볼링 : 가족과 함께 볼링을 쳤을 때 즐거웠다. (박건후)
- 부산대에서 웹툰책을 샀을 때 : 부산대에서 웹툰 만화를 몇권 샀던 경험이 있다. (조하늘)
- 벚꽃 : 동래여중 근처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 가장 특별한 기억이었다. (방수연)
- 친구와 쇼핑 : 부산대에서 친구와 쇼핑했던 것이 좋았다. (김해원)
- 영화 : 청년경찰을 가장 재미있게 봤는데, 주로 부산대에서 보았다. (전가은)
- 야구 : 집에서 TV로 야구를 보는 게 가장 큰 활동이다. (장하나)
- 없다 : 많이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인상적인 문화생활이 없다. (오서진)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주10시이후 노래방, PC방 등등 청소년출입가능 : 10시이후 PC방,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박도건)
- 학교에 가는 차비를 학교에서 : 일주일에 5000원정도 드는데, 다 내달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즐길 돈이 없다. (방수연)
- 주말 늘리기 : 주말에는 보다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주4일제로 금토일에는 시간적으로 여유있었으면 좋겠다.(오서진)
- 등교시간을 조금 늦게 :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다. 피곤하기도 하고, (김해원)
- 싸게 : 문화생활에 있어서 청소년할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장하나)
- 청소년 공짜PC방을 만들어 줬으면 : PC방이 아니면 다른 문화생활이 없다. 공공PC방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오서진)
- 놀 수 있는 시간 : 평일에는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없다. (김해원)
-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 학교에서의 생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박도건)
- 남산동에 볼링장을 : 가까운, 생활하는 곳에 취미를 즐길 수 있는게 좋을 것 같다. (이경수)
- 축구장, 풋살장 : 학교에서는 축구부만 사용해서, 집근처에 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리고 빌리는 데 돈이 든다. (이성준)
- 예산확충 : 도서관에 갔었는데 제가 원하는 책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부산방과후행복카드”가 있는데 학생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챙겨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하늘)
- 청소년의 공간 : 서면의 놀이마루 같은 청소년센터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존이 있으면 좋겠다. (박건후)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1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 장소 :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갤러리

▶ **참석자 : 총 8명**

소속	이름
서동예술창작공간 창작촌과 사랑방손님참가자	하현정, 조난영(딴루리), 이수빈(도담도담 동화나래) 서영숙(금정구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장), 함수경(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모상미, 권정철(모이다아트협동조합), 오엄지(서동예술창작공간 담당자)
합계	**8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공갈빵 : 문화를 진행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스스로의 문화생활 상태는 빈곤의 상태인 것 같다. 큰 기대를 가지고 서동에 왔는데, 실제로 열어보니 공갈빵처럼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모상미)
- 새로운 인연을 쌓는 곳 : 해운대구 중심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활동했는데, 여기 서동에 와서 새로운 인연을 쌓는 것 같다. 사실, 나의 문화생활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크게 동감해주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아이들과 작가들을 통해 외로움이 덜어진다. (함수경)
- 노력 : 문화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화는 계속 노력을 요하는 대상인 것 같다.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들이 즐거울 텐데, 계속 서류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오엄지)
- 삶의 활력소, 스트레스 해소 : 여기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나에게는 문화가 활력소이다. (하현정)
- 어르신들의 놀이동산, 금정구 : 상대하는 피교육자가 주로 어르신들이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매우 즐거워 하시고, 그 시간 자체가 그 분들에게 놀이동산이다. (서영숙)
- 의외 : 서동에서 진행했던 Earth Hour로 처음 서동에서 문화를 접했다. 그 당시 서동 시장에서 락밴드 공연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 이후로 늘 문화가 나에게 의외의 연속이었다. (이수빈)
- 생활의 동반자 : 아이가 있다 보니, 늘 문화행사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이제는 문화가 생활의 동반자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조난영)
- : 사업을 하다가 몸이 다치게 되어,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삶의 돌파구를 찾던 중에 금정문화재단과 서동예술창작공간을 만나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했다고 할 때 동그라미와 별을 그려 주듯이 너무 좋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권정철)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모험 : 처음에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기획자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문화는 가면 갈수록 깊게 탐색하는 과정이 된 것 같다. 늘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 (모상미)

- H2O :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서 나에게 문화가 산소보다, 물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다. (권정철)
- 건조기 : 얼마 전에 건조기를 샀다. 가격 때문에 사기 망설여졌었는데, 사고 나니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문화도 처음 접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우선 접하고 나면 너무 좋다. (이수빈)
- 즐김 :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문화인 것 같다. (하현정)
- 배운게 도둑질 : 배운 게 문화이고, 잘하는 것도 문화이다 보니,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도 문화이다. (조난영)
- 내가 가야할 길 : 이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었다. 즐겁게 즐기고 싶다.(서영숙)
- 철학을 쓰고, 교육을 입고, 예술을 신고, 춤추다. : 삶과 교육과 문화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쓴 책 제목인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문화 자체가 삶이고, 교육이고, 예술인 것 같다. (함수경)

금정구에서 경험했던 문화생활 중에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 도담도담 동화나래, 금빛나래 : 도담도담을 시작으로 문화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뿌듯함이 크다. 작년에 금빛나래 단장으로 활동했다. 무료공연으로 봉사 활동도 했었는데, 문화로 봉사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다. (이수빈)
- 금정산, 팔각정 : 금정산 입구 쪽에 쉼터(팔각정)가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악인들이 올라가서 공연 봉사활동을 했다. 거기서 공연을 하면 노인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늘 와주셔서 공연하는 국악인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서영숙)
- 금정여고의 추억 : 어릴 때 몸이 좋지 않아서, 운동 삼아 고등학교 때 무용을 시작했다. 무용을 할 때 서동미로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최근에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오면서 옛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함수경)
- 김밥 : 작년 서동미로시장에서 진행했던 문화가 있는 날에 캘리그라피 활동을 했는데, 상인분들이 메뉴판으로 쓸 글을 적어달라고 하셔서 써드리곤 했다. 요즘에도 서동시장에 가면 상인 분들이 너무 반가워 해주시고, 좋아해주신다. 했던 활동 중에 가장 뿌듯한 경험이다. (권정철)
- 섯골오픈데이 : 섯골에 입주해서 활동하다보니, 문화가 있는 날, 입주 작가 전시 등으로 늘 바빠서 마음이 허했다. 그러다가 섯골에 손님을 초대하는 오픈데이를 했는데, 팥죽도 쑤고, 공간을 꾸며서 주민들을 초대했다. 그때 섯골 오픈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주셨다. 개인적으로 허했던 마음을 채워줬던 소중한 기억이다. (모상미)
- 옥상피크닉 : 지난 7월에 재단에 입사하고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왔다. 서동예술창작공간에는 도서관도 있고 시장과 밀접해 있어서 가족단위 방문이 참 많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서, 옥상 피크닉을 진행했다. 그 당시 가족 분들의 반응이 참 좋아서,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오엄지)
- 서동미로시장 :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도망 나와서 서동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이다. (조난영)
-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구민기획단 : 이번에 축제 구민기획단 1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커서 많이 들떠 있다. (하현정)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섯골간판, 기둥 : 처음 섯골문화예술촌을 찾을 때 간판이 없어서 너무 찾기 힘들었다. 공간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다. 특히나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생들이 길을 못 찾아서 힘들다. 서동예술창작공간 갤러리도 기둥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 너무 어렵다. (이수빈)
- 금정구의 문화활동 하시는 동아리를 활용해서 축제를 해달라. : 축제에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오늘데, 그럴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구민중심의 축제가 필요하다. (서영숙)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축제 등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무대를 제공해 줘야 프로그램 참여도도 높아지고, 공연 관객도 많이질 것 같다. (하현정)
- 생활문화축제 : 축제관련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 축제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다른 지역축제에 비해서 금정구 축제는 정말 금정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생활문화를 하고 계시는 구민 분들이 많다고 느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엄지)
- 구민들을 상대로 문화교실 : 업사이클링 수업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아쉬움이 컸다. 구민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권정철)
- 우리의 전통의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 산성축제에 병역체험을 보면서, 축제에 우리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멋을 누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서영숙)
- 입주 작가나 단체에 대한 활동기반을 마련,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금정구가 문화예술교육 특구이고, 설치미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입주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하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아무리 좋은 단체가 와도 재단에서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활동이 어렵다. 입주단체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 줘야 단체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모상미)
- 행복한 균형 : 기관과 구민, 문화생산자와 수요자, 예술가와 생활문화인 등 많은 부분들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함수경)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2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 장소 : 서동예술창작공간 2층 다목적홀

▶ **참석자 : 총 7명**

소속	이름
서동예술창작공간 주부모임 〈마마유〉 참가자	전현미, 조영수, 강미남, 유지희, 박선미, 장귀엽, 서순희
합계	**7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없다 : 학교 다닐 때는 문화생활을 좀 즐긴 것 같은데, 결혼하고 금정구에 와서 즐긴 게 없는 것 같다. (유지희)
-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다. 아이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비용이 비싸다. (강미남)
- 적당히 잘 하고 있다. : 대학교 때는 영화 보는 것 밖에 못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나름 여유가 생겨서 뭘 할까 찾다가 마을 책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어디든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문화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다. (박선미)
- 서동에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있어서 만족함 : 인형극 활동을 계기로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된다. (장귀엽)
- 알아가는 과정 : 처음에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막상 와보니 즐길 것이 많았다. 계속해서 이곳의 문화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조영수)
-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지, 사는게 바빴는지 모르고 지냄 : 처음에는 이곳에 도서관만 있는 줄 알았다. 우연히 주변의 권유로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많은 것들을 알게되었다. (서순희)
- 아이들 위주로 : 아이가 있다 보니, 영화도, 음악도 모든 것이 다 아이들 위주로 하게 된다. 정작 내 문화가 없는 것 같다. (전현미)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혼자독서 : 혼자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여유롭게 혼자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 혼자독서라고 적었다. 나에게 아직은 문화가 먼 얘기인 것 같다. (강미남)
-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 문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작지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문화인 것 같다. (유지희)
- 스며듦 : 문화 프로그램을 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내 생활이 심심한 줄 몰랐다. 그런데, 한번 문화 활동을 시작하니 막상 끝나면 아쉽고 계속 하고 싶다. 동네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박선미)
- 힐링 : 문화란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장귀엽)
- 스포츠 : 틈틈이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내 나름의 문화생활인 것 같다. (조영수)
- 영화... : 문화라고 하면 영화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막상 참여하기 어려워서 영화밖에는 모르는 것 같다. (전현미)

- 일탈 : 너무나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상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게 문화 인 것 같다. (서순희)

당신이 경험했던 문화생활 중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 연극 : 작년에 금정문화회관에서 "나도 배우다" 수업을 들었다. 너무 좋아서 끝나고 많이 아쉬웠다. 또 참여하고 싶다. (장귀엽)
-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했던 옥상피크닉 : 보통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2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작년 옥상피크닉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좋았다. (전현미)
- 자원봉사 : 작년에 금빛나래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원봉사를 했다. 사실, 공연 자원봉사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봉사했던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너무 뜻깊었다. (박선미)
- 섯골창작촌 캘리, 재활용 수업 : 작년에 섯골문화예술창작촌에서 하는 캘리수업, 재활용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조영수)
- 어린이날 행사 : 작년 금정문화회관에서 어린이날에 했던 프로그램이 참 좋아서 다양하게 체험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유지희)
- 사물놀이 구경 : 온천천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걸 봤다 너무 흥겹게 공연을 해서 즐겁게 즐겼던 경험이 있다. (서순희)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작은 도서관, 아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 도서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서순희)
- 가족체험,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공연 : 아이들이 있으면 공연을 보기가 어렵다.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귀엽)
- 프리마켓 :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많은데,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프리마켓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미남)
- 홍보, 아이들과 요리수업 : 지역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요리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지희)
- 24시간 도서관, 어린이 요리교실, 수화교실 : 도서관은 24시간 오픈하면 아이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놀 수 있을 것 같다. 요리교실, 수화교실 등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조영수)
- 공원 : 집 주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현미)
- 요리프로그램 : 아이들과 요리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현미)
- 폴댄스 : TV에서 폴댄스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멀리까지 가야한다. 배우고 싶어서 적어봤다. (박선미)
- 걸어 다니는 인도 : 그리고 서동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많이 없다. 아이들과 다니기 많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요즘 구청에 민원을 넣게 된다. (박선미)
- 동상초 근처 작은 도서관 : 동상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가려면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한다. 집 근처에 가기 편한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박선미)
- 김치만들기 프로그램 : 김치 만들기는 혼자하기 힘들다.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쉽고 재미있을 것 같다. (박선미)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3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5월 4일(금) | 장소 :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옹달샘

▶ **참석자 : 총 7명**

소속	이름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강윤희, 박소영, 전영주, 공경주, 이은정, 조은안, 차일찬(금성동 자치위원장)
합계	**7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삶의 여유의 척도 :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는 무언가 할 것을 찾게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냥 스쳐지나가게 된다. 금정문화회관까지 공연을 보러가고 싶어도, 거리와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여유는 안 되는 것 같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삶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강윤희)
- 소소 : 아랫마을에 있을 때는 육아에 지쳐서 전혀 문화생활을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살기 시작하면서 옹달샘이나 소소 커피숍을 가는 소소한 문화생활을 혼자 즐기기 시작한 것 같다. 혼자 마을산책을 다닌다거나, 마음 맞는 주변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하는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전영주)
- Good : 직업이 체험촌 촌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매일이 일요일 같다. 산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돈은 안 되도 정말 좋은 직업이다. 삶 속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Good이라고 썼다. 이렇게 좋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차일찬)
- 50% : 문화회관 같은 곳에 가서 공연을 봐도 한 번 다녀오면 끝이다.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금성동에 살면서 삶이 문화 속으로 스며든다. 또 반면에 단점은 정보를 많이 알기가 어렵다. 금정구의 문화생활을 100% 누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박소영)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밥 : 문화를 거창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밥처럼 없어서는 안되고,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은정)
- 행복 :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치열한 삶을 살아오다가, 금성동에서 여유로운 삶과 소소한 문화를 즐기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전영주)
- 도전 : 어릴 때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실제 노동은 모두 일로 느껴진다. 일을 안 하면서 부터는 또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찾아서 계속 도전하게 된다. (차일찬)
-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 문화를 즐길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강윤희)
- 에너지 :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보면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이 든다. 예전에는 해야 하는 일이 70%이고, 하고 싶은 일(에너지가 생기는 일)이 30%정도 였는데, 이제는 거의 반반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삶에 에너지가 생긴다. (공경주)
- 정서적인 곡기 : 현재 문화에 허기져있는 상황인 것 같다. 공연, 전시와 같은 문화가 채워지지 않아서 허한 마음이 든다. 한 번씩 공연을 보러 서울을 간다. 같은 공연이라도, 부산에서 하는 공연은 공연장 환경 때문인지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박소영)

당신이 경험했던 문화생활 중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 부산대 프리마켓 : 부산대 프리마켓에서 악세사리를 샀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개인 판매자들이 상점이 없어도 직접 만든 물건을 소소하게 파는 것이 보기 좋았다. (조은안)
- 작은 축제가 금정구에 큰 축제가 되었을 때 : 산성에 여름밤이 되면 너무 시원하다. 사람들이 해운대를 가지 않아도 밤에 산성에 오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산성 축제를 시작했는데, 그 축제가 커져서 지금 산성 축제가 되고 다목적 광장이 생기게 되었다. (차일찬)
- 저녁 먹고 마을 사람들과 영화 :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미술을 배우고 소묘도 해보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사실 아랫마을에 내려가면 비싼 돈을 주고 배워야 하는데,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전영주)
- 다목적광장에서의 저녁 콘서트 : 여름에 다목적 광장에서 하는 청년문화박람회를 갔는데, 에어배드에 딸과 함께 누워서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았다. 또 기다려진다. (강윤희)
- 금정문화회관 앙상블 디토 : 금정구에서 봤던 공연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공연이어서 인상 깊었다.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공경주)
- 달집태우기 : 금성동에서도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해서 의미 있는 행사 인 것 같다. (공경주)
- 달빛걷기 : 작년에 달빛걷기에 참여했는데 스탭들이 너무 없어서 초보자들이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너무 좋은 행사인데 조금씩 축소되는 것 같다. (이은정)
- 부산대 근처 버스킹, 온천천 문화공연 : 지금 상황이 크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교대 쪽으로 가보면 온천천이 시민공원으로 잘 조성되어있다. 반면에 금정구 온천천은 너무 단조롭고 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조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은정)
- 문화회관 : 이번에 금정문화회관에 대관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리모델링 같은 외적인 부분에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도 구민들 대상으로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은정)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작은 문화 지원 : 교육문화협동조합 같은 작은 문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큰 것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소에서 하는 작은 장터도 문화다.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일찬)
- 문화소식을 알 수 있는 앱 설치 : 좋은 행사가 너무 많은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앱이 있어서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은안)
- 좋은 공연 유치, 전시도 많았으면 : 작은 소소한 공연, 전시 뿐 아니라 임팩트 있는 좋은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경주)
- 각 지역에 맞는 찾아가는 문화 : 시장, 주거지, 대학로 등 각 지역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에 맞는 맞춤형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강윤희)
- 홍보 : 공연, 전시가 많아도 알기가 어렵다. 또 공연을 하고 싶어도 너무 대관료가 비싸다. 구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박소영)
- 소소한 마을의 문화 공간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 작은 공연을 하는 분들이 마을마다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지원해서 마을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영주)
- 정보전달 : 광장에서 행사를 해도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언제 하는지, 정보를 알기 어려워서 마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동네에 게시판이 있어서 게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은정)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4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 장소 : 금정 청소년수련관 4층

▶ **참석자 : 총 16명**

소속	이름
금정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대표자	김지운, 이화영(비크루), 박진형, 진희진(하마), 신유리(ABC), 주성민(동래고 댄스부), 이경빈(봉사동아리), 유현선, 권나영, 김지은(원어클락), 손건희(용인고 와이사이트), 황도경(용인고 댄스동아리), 권지민(청소년동아리 꼬마들), 하주원(용인고 위안부바로알기), 김진호, 이지민(심플리밴드)
합계	**16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포카리스웨트 : 나의 문화생활은, 옆에 있으면 먹지만, 없으면 굳이 찾지 않는 포카리스웨트 같다. (김진호)
- 1/2 : 진로도 문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 생활의 반을 차지해서 문화는 1/2이다. (이지민)
- 中 : 딱 중간 정도이다.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이화영)
- 평균이상으로 즐기는 것 같다 : 즐기는 사람은 많이 즐기고 즐기지 않는 사람은 즐기지 않는데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평균이상인 것 같다. (주성민)
- 취미생활 : 취미가 춤추는 것이라서 나의 문화는 취미생활인 것 같다. (황도경)
- 잘 모르겠다. : 한꺼번에 많이 즐길 때도 있고 즐기지 않을 때는 전혀 즐기지 않아 편차가 너무 크다. (권지민)
- 행복 : 문화를 즐기면 행복해서, 행복이라고 썼다. (권나영)
- 힐링 : 문화를 즐기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문화를 통해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의 문화생활은 힐링이다. (유현선)
- 거의 없다. 시험 끝나고 한 번씩 영화나 보는 정도 : 금정구는 문화생활의 선택지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금정구에서 영화 정도만 즐기는 것 같다. (하주원)
- 재밌는 활동이 많아서 좋다 : 많이 활동하진 않았지만 하면 재밌고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신유리)
- 진로를 찾는 방법 중 하나다 : 예술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다. 문화를 즐기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진희진)
- 홍보x : 아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만 알고 즐기는 것같다. 문화행사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경빈)
- 금정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주실 합주실을 제공해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 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무료라서 동아리 활동하기가 좋다. 다른 곳은 대관료를 내야 이용 할 수 있어서, 온천천에서 연습을 하기도 한다. (손건희)
- 문화생활이 다른 곳에 비해 홍보나 규모가 작고 청소년이 즐기기 힘들다. :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가 부족하다.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홍보보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접한다. 그리고 금정구에서 하는 행사들은 규모는 큰 것이 많은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매우 부족하다. 예를들어 공연 장소도 부산대 1번 출구 및 온천천에서 어른들이 하는 행사는 진행이 되는데 청소년이 기획한 행사는 진행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 (박진형)

-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서 댄스 연습하기가 편했다. : 댄스 연습 할 곳이 부족하다. 양정에도 수련관이 있지만, 너무 멀고, 금정청소년수련관이 시설도 좋고 가까워서 자주 이용한다. (김지은)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여가생활 : 스트레스 받을 때 풀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이다. (박진형)
- 삶의 낙이다 : 공부에 지친 스트레스를 문화로 풀 수 있다. 문화는 내 삶의 낙이다. (황도경)
- 휴식 : 쉬다보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데 문화를 즐기면 쉬는 느낌이 들고 무언가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문화다. (김진우)
- 여유 : 백수다 보니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춤을 추면 돈을 벌수도 있고 무언가를 한다는 만족감과 경력이 생겨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이화영)
- 밥이다 : 없으면 못산다! 내 진로가 문화이기도 해서 밥이라고 적었다. (이지민)
- 공기 : 주변에 항상 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문득 공기좋은 곳에 가면 '공기가 좋다'는 걸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공기 같다. (하주원)
- 클래식 :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처럼 즐거운 문화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권지민)
- 게임 : 심심할 때 하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를 즐기다가 좋은 동료를 만나면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진 것처럼 즐겁다. (신유리)
- 목표 : 진로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문화생활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목표이다. (주성민)
- 경험 : 문화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꿈을 찾을 수 있어서 나에게는 문화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진희진)
- 중독 : 문화생활은 한 번하기 시작하면 중독된다. 안 하면 계속 하고 싶어진다. (김지민)
- 머리카락 : 문화는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것! (권나영)
- 마블 : 마블 영화 하나를 보면 다른 시리즈를 보고 싶은 것처럼 한가지 축제를 즐기다 보면 다른 축제와 문화를 찾아보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이경빈)
- 남친 : 없으면 너무 외로워진다. (유현선)

당신이 경험했던 금정구에서의 문화생활 중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청소년 수련관에서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 :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습을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친구들과 사이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금정청소년 수련관에서의 경험이 가장 인상깊다. (황도경)
- 금청수(금정청소년수련관) : 금청수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팀들이 연합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기도 한다. 금청수에서 내 스스로의 사회성도 키울 수 있는 것 같다. (신유리)
- 금정청소년수련관 :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제대로 배워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인 경험이 되었다. (김지민)
- 부산대학교 연계 동아리 : 학교에서 부산대와 연계하여 공학 동아리를 했는데 그것이 인상깊었다. 같이 연구도 하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하주원)
- 부산대 1번 출구 버스킹 : 부산대 1번출구 문화나눔터에서 버스킹을 할때가 많다. 대부분 사람이 많이 없지만 가끔 좋은 어른들과 관객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날때마다 참 인상깊다. (이화영)

- 버스킹 : 부산대 앞에서 하는 버스킹을 자주 본다.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인상적인 경험이다. (이지민)
- 흥청망청 :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끼리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축제였다. 그나마 금정구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만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박진형)
- 윤산 벚꽃축제 : 벚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김지은)
- 금정 빛축제 : 금어 빛 축제 빛터널이 너무 예뻐서 인상적이었다. (이경빈)
- 금정문화회관 : 초등학생 때 금정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체험하는 것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아서 기억에 남는다. (유현선)
- 좋은 것, 일단 오빠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문화생활이 많아요. : 처음에는 하기 싫었던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수련관에 멋진 오빠들 때문에 열심히 했다. (권나영)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악기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 앰프 잼배 기타를 들고 온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 셔틀도 대중교통도 없어서 장비를 들고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김진호)
- 버스 : 금정청소년 수련관을 가려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화가 난다. (권나영)
- 금청수 셔틀버스 : 같은 의견이다. 청소년 수련관까지 오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면 좋겠다. (이지민)
- 에스컬레이터 : 금정청소년수련관까지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김지은)
- 금정구에서 공연을 자주 개최하면 좋겠다 : 나의 공연을 친구들과 주민들이 많이 봐줄 수 있도록 공연을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 (황도경)
- 홍보(별3개), 청소년을 위한 축제 :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가 많았으면 좋겠다. 행사를 해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경빈)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 : 대학축제와 마켓 말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박진형)
- 과자 자판기가 필요하다 : 금정청소년 수련관이 너무 높이 위치해 있어서, 연습하고 출출할 때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과자 자판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진희진)
- 가까운 공원 :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공간이 없다. 카페는 너무 비싸고, 아파트 놀이터는 쫓겨난다. 작은 공원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신유진)
-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공연 공간, 연습 공간이 필요하다. : 금정구에는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 다른 지역에서도 금정 청소년수련관에 많이 찾아오는데 너무 팀이 많다보니, 연습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서 연습을 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연습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른들의 갑질이 심하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다. (이화영)
- 대관료 : 문화공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쓰기에는 대관료가 비싸서 부담이 된다. 청소년들에게 대관료를 지원해 주거나. 무료 연습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주원)

문화플랜 수립 커뮤니티 15차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5월 17일(목) | 장소 : 현곡초등학교

▶ **참석자 : 총 6명**

소속	이름
현곡초등학교 교사모임	조황(교감), 곽현주, 홍남희, 박둘복, 이태헌, 이재근
합계	**6명**

▶ **간담회 회의록**

금정구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만족 : 금정구의 문화회관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좋은 음악회와 전시회가 많아서 자주 간다. 중앙대로에서 홍보물도 자주 본다. (조황)
- 관심은 있으나 문화생활 누리지 못함 : 나의 관심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항상 정보가 부족해서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서동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중앙도로 구간에 홍보물이 많은 것 같다. (곽현주)
- 필요한 것만 콕 집어 사는 쇼핑 : 현재는 금정구에서 부산대 앞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 현곡초 학생들이 관현악 공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태헌)
- 업무다 : 학생들만 인솔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든다. B급감성의 편안한 문화소비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린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재근)
- 차선책이다 : 집이 동래구이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찾았는데 안될 때, 그럴 때 금정구에 오게 되는 것 같다. 집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 (홍남희)
- 일상이다 :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했다. 책을 좋아하다보니까 영풍문고에 자주 가고, 카페에서 친지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대 앞 카페에서 그런 일상을 보낸다. NC백화점 문화센터도 자주 이용한다. (박둘복)

당신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 짐이다 : 왠지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나를 위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 (이재근)
- 꽃신이 되고 싶은 짚신이다 : 관련된 책이 있어서 생각이 난 문구인데,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런 삶을 갖고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실제 나의 수준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해보았다. (박둘복)
- 생활이고 삶이다 : 오륜대도 자주 가고, 범어사도 자주가고, 말 그대로 생활이자 삶이다. 자연이 풍요롭고, 역사자원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 부산대도 있고, 세대간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조황)
- 나에게 문화란 탄력이다 : 일을 하다보면 피곤하지만, 가서 보고 오면, 몇 날 며칠을 그 이야기를 하고, 생활의 활력이 되는 것 같다. (이태헌)
- 휴식이다 : 누리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이 휴식이고, 문화가 나에게 그런 것 같다. 직장인의 고달픔과 애환. (곽현주)

- 재미있는 것, 재료, 자료 : 엄마로서 교사로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항상 문화적 경험을 삶의 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 나를 위한 문화생활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기도 하다. (홍남희)

금정구는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할까요?

- 금성초 별밤가족캠프 : 금성초등학교에서 하는 별밤가족캠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가족을 위한 좋은 행사처럼 보였다. (이재근)
- 홍법사 템플스테이 : 한국 문화전수 차원에서 토요일마다 하는데, 명상이 있는 하루가 참 좋았다. (이태헌)
- 금정문화회관에서의 학생공연 : 금정문화회관이 특별하다. 다만 이 위치가 구석이어서 참가하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다. (이태헌)
- 부산대학축제 공연관람 : 학생들이 즐기는 에너지에 같이 동화되기도 하고, 공연을 할 때 같이 가슴이 뛰고, 이런 젊은 학생들의 에너지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둘복)
- 세계문화교류 : 금정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세계시민교육 등 국제적인 행사가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행정구청이 정말 남다른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황)
- 범어사 등, 석가탄신일 : 결혼하면서부터 범어사 인근에서 살고 있는데, 범어사는 종교 뿐만아니라 전통문화유산이다. 이런 역사적 유산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부산의 입구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곽현주)
- 버스킹(부산대 앞 온천천) : 부산대에 갔다가 국악버스킹을 보았다. 기타공연만 보다가, 국악공연을 퓨전으로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이색적이고, 일상의 공간에서 거리를 걷다가 만난 공연이 너무 행복했다. (홍남희)

당신의 빛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금정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홍보 : 케이블 TV에 보면, 지역방송에서 지역문화행사를 보여주는데, 금정구 관련해서 봤던 기억이 없고, 왠지 문화체험을 하려면 해운대 벡스코를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혹은 동래구는 아파트 게시판에 축제홍보가 되고 있다. 홍보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홍남희)
- 미술관련 전시체험 : 해운대 미술관련 전시체험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바다미술제와 같은 그런 전시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홍남희)
-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갤러리가 많아졌으면 : 미술전시는 금정문화회관에서도 좀 적은 것 같고, 금정구의 다른 인프라에 비해서 미술쪽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박둘복)
- 박물관 건립 :금정구는 성보박물관, 부산대박물관도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것이지 않나. 국가단위에서 하는 중심되는 박물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조황)
- 가족단위 밤역사기행(금정구 문화유적 루트) : 남구에서는 부산 근현대유산 밤루트 설명을 하는 게 있고, 경주에서는 왕릉 밤투어가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금정구의 작은 갤러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 투어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태헌)
- 금정구 하면 떠오르는 전통으로서의 문화축제 한가지 :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지역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컨텐츠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곽현주)
- 유아 및 아이들을 위한 문화시설, 문화행사와 그에 대한 홍보가 많아졌으면 : 어려서부터 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어린이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금정구만의 문화컨텐츠가 있으면 어려서부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근)

금정문화플랜

자문위원(가나다순)

김동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부원장)
우신구(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시내(예술인문교육연구소 지금-여기 대표)

기획 및 실행

설영성(금정문화재단 사무처장)
원향미(금정문화재단 문화소통팀장)
김민정(금정문화재단 예술공연지원센터 대리)
임예원(금정문화재단 문화소통팀 대리)
강민주(금정문화재단 문화소통팀)

발행인 | 정미영 **발행일** | 2019년 2월 **발행처** |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주소** 4625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 1층
전화 051-512-3455 **홈페이지** www.gjfac.org **디자인·인쇄** | 디자인 미감 **전화** 051-515-8092~3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

금정문화플랜

2019~2022

금정구 GEUMJEONGGU

금정문화재단 Geumjeo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